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5호 【루계 제24588호】 주체103(2014)년 6월 24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시찰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시찰하신 소식을 16일과 17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보도망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면서 잠수함부대를 창설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중종합훈련실에서 어뢰돌격훈련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내훈련을 보신 다음 잠수함 748호의 내부격실들을 돌아보시고 직접 실동훈련을 승선지도하시였으며 해병들이 훈련을 잘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당중앙은 잠수함련합부대들을 대단히 중시한다고 하시면서 군부대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병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준엄한 바다싸움에서의 승리는 훈련을 통하여 마련된다는 자각을 안고 실지전투를 가상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완성한데 기초하여 지휘관들의 해상 및 수중작전조직지휘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부대의 식당, 잠수함 730호 해병들의 병실, 교양실들을 돌아보시면서 해병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잠수함 730호와 748호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부대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중국의 《베이징일보》, 《길림신문》, 중앙TV방송,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동북보도망, 동북망, 길림망,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웰남의 TV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브이엔엑스프레스, 웰남네트, 미국의 UPI통신, 영국신문들인 《텔레그라프》, 《데일리 메일》, 에스빠냐의 EFE통신, 신문 《엘 빠이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흑룡강신문》, 영국신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863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이 소식과 함께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중국, 웰남, 영국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

남조선 각계가 격찬

백두산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백전백승의 력사를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존엄높은 모습은 남조선 각계층의 심장속에 꺼질줄 모르는 불빛으로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태양회 회원 김주일은 어느 한 모임에서 이북은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사회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화목한 대가정으로 변모되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부산의 한 회사원은 이북민중 누구나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 어머니품이라고 부르고있는것은 정책작성에서 민중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사회의 모든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게 하는 정치를 펴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자로서의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다고 한 울산의 로동자, 항일혁명전통에 뿌리를 두고 주체사상을 리념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정확한 투쟁목표와 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민중을 옳바르게 령도하고있다고 말한 서울대학교의 한 대학생의 가슴속에도 위대한 당에 대한 신뢰의 정이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서울에서 진행된 한 토론회장에서는 일심단결이라는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단결을 이루어낸 필승불패의 당은 조선로동당뿐이다, 조선로동당의 승리의 력사는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절세의 위인들을 모심으로써 백승을 떨쳐온 **김일성**주석님의 력사,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이다는 경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새별회 회장은 **김일성**주석님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이 세월의 풍파속에서도 자기의 주체적립장을 변함없이 고수해올수 있은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의 위업을 꿋꿋이 이어오셨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한 력사학교수는 동료들에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발전풍부화하시고 그것을 당건설과 활동에 구현하시여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였다고 칭송하였다.

잡지 《민》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상론을 조선로동당의 정치철학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사상의 대, 정치의 대가 굳건한 위대한 인민이 탄생하고 북은 오늘도 어떤 압력과 위협에도 두려움없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는 글이 실려 각계의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는 남녘겨레의 심금을 세차게 틀어잡고있다.

《련합뉴스》, 《KBS》, 《MBC》, 《SBS》 등 통신, 방송들은 공화국이 당규약개정과 헌법수정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법화하고 당의 지도사상과 최고강령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정식화하였으며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이라고 명시하였다고 전하였다.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의 전문을 게재하고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하였다.

한 인터네트신문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의 미래는 창창하며 **김정일**장군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려명도, 통일의 새 아침도 기어이 밝아올것이라는 글을 실었다.

한 민주인사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권위있는 당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은 우리 이남민중의 심장속에도 꺼질줄 모르는 불빛으로 깊이 간직되여있다.

삼천리강토를 둘로 갈라놓은 분렬의 장벽도 그 위대한 불빛을 가로막을수 없다.

절세의 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한 남조선인민들은 《백승의 기상떨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모습에서 이 땅에 밝아올 통일의 새 아침을 확신한다.》,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과 조국통일을 실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은 휘황찬란할것이다.》고 확언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김일성**주석회고 탄자니아위원회가 13일 다르 에스살람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탄자니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서기장 마이나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을 맞으며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동지회고 마쟈르위원회가 5월 26일 부다페슈뜨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튜르매르 쥴라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5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더 높이, 더 빨리!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선전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경제과업수행에서 높이 발양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와 남포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도안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집중강연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선전일군들과 직외강연강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들끓는 협동벌에 달려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치밀한 작전밑에 도와 시, 군들에 일제히 집중강연선전대가 조직되여 적극적인 강연선전활동을 벌리고있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 신계린회석광산, 례성강발전소건설장, 도와 시, 군의 비료생산기지들 등 농업부문과 련관단위들을 찾은 도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장풍군을 비롯한 분계연선지대 협동농장들에 나간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인 강철수, 전명화, 김석복동무들을 비롯한 도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높은 자각을 안고 맡은 농사일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미루벌지구에 위치하고있는 신계군과 곡산군, 수안군에 나간 도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마지막골짜기포전에까지 찾아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휴식시간에는 앞선 단위들의 혁신적인 소식도 알려주며 대중을 혁신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황주, 린산, 토산군당위원회들에서 집중강연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이 군들의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낮에는 전투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선전활동을 벌리고 저녁에는 농장원들의 가정도 방문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히 송림시당위원회에서는 강연강사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집중강연선전활동의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시의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강연선전활동을 혁신자축하모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과 결부하여 의의있게 진행함으로써 커다란 실효를 거두고있다.

도와 각 시, 군의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벌써 수십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 수천회의 강연선전활동을 벌림으로써 이르는 곳마다에서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의 호소성이 높고 감화력이 큰 집중강연선전은 전투장마다에서 큰 실효를 나타내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남포시당위원회에서

남포시당위원회 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련속 들이대여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온천군의 협동농장들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시의 중요단위들에 내려가 대중에게 당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얼마전 파도세찬 서해의 어장에서 진행한 시당위원회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은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떨쳐나선 어로공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알곡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직관선동과 구두선동, 예술선동과 같은 여러가지 형식을 잘 배합하여 적극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는것과 함께 시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고조전투로 들끓는 생산현장들마다에서 사상전의 련속포화, 집중포화, 명중포화가 높이 울리도록 하고있다.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시안의 선전선동력량을 동원하여 경제선동활동을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부서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김매기전투로 들끓는 농장벌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시작가동맹위원회, 시예술단, 시예술선전대의 성원들로 집중경제선동대와 예술선동소편대들을 무어 협동농장들에 내보내여 농장벌이 들썩하게 하고있다.

시작가동맹위원회의 작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 나가 현지창작활동을 벌리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시에서 조직한 집중강연선전대와 시예술선전대 대원들도 협동벌들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찾아가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특파기자 주창선

천금보다 더 소중한 사상일군의 멋

◇ 지금 우리 당사상일군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대중속으로 들어가고있다.

배천군당위원회 비서 안효동동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과 어머니 우리 당이 펼치는 인민사랑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에 접하고 감격과 환희, 불같은 맹세로 가슴끓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생각되는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멋에 사상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긍지와 함께 솟구치는 열정과 일욕심을 금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일군만의 심정이라고 하겠는가. 혁명적인 사상공세가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 사상일군들모두가 체험하고 자각하게 되는 자부이고 영예일것이다.

◇ 사상일군의 멋, 이것은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꺼지지 않는 홰불, 진격의 나팔수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데서 찾는 삶의 보람이고 희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이 어느때나 당의 목소리를 듣고싶어하고 당정책을 쌍수를 들어 지지할 때 가슴뭉클해지는 멋을 천금보다 더 소중히 여길줄 아는 사람이 참된 사상일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2월 19일, 력사의 이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사상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현지지도를 하시다가 포전에서 《동무 누구요?》하고 물으시면 《예, 저는 군당사상비서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무엇하러 나왔소?》라고 물으시면 《당정책을 해설하러 나왔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이것이 가장 리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우리 사상일군들의 사명과 본분을 깊이 새겨주는 고귀한 지침이다.

1970년대 당사상일군들은 당정책이 제시되면 즉시에 배낭을 메고 대중속으로 들어갔으며 그 관철을 위해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며 대중을 이끌었다. 그처럼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 사상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당정책이 살아숨쉬고 훌륭한 결실을 맺군 하였다.

군중이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의 뜻을 받들어 산악같이 떨쳐나설 때 느끼는 희열과 보람, 바로 이런 멋으로 하여 우리 사상일군들이 온갖 고생을 락으로 여기며 인민들을 찾아 걷고 또 걷는것이 아니겠는가.

◇ 사상일군들은 우리 당의 붉은 정수분자들이다.

모든 사상일군들은 언제나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당정책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킬줄 아는 능숙한 조직동원자가 되여야 한다.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알려주기 위해 하루밤에도 수십리길을 걷는 정신, 열백밤을 패가며 당정책을 학습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불같은 열정이 사상일군들의 몸에 푹 배야 한다. 당의 사상과 믿음을 한생의 재부로 간직하고 당정책을 한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며 맡은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하는데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한다.

상반년계획 넘쳐 수행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년초부터 힘찬 투쟁을 벌려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일군들과 탄부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석탄생산으로 들끓는 탄광들을 맡고 내려가 석탄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정과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문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높아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탄부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석탄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탄광의 굴진공들과 탄부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막장마다에서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석탄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전차갱과 청년갱을 비롯한 탄광의 모든 갱에서 매일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천내탄광과 삼천탄광에서는 채탄중대들사이에 더 많은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석탄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있다.

보장단위의 로동자들도 견인불발의 의지로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 부속품과 소공구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석탄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논벼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하고있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생산에서 련일 혁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강계세멘트공장과 함흥세멘트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힘을 넣어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강계세멘트공장에서

강계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힘을 넣어 세멘트생산을 늘이고있다.

올해 공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세멘트의 질을 훨씬 높이고 세멘트생산량은 1.6배로 끌어올려 시안의 건설장들에 질좋은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이자 세멘트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원료종합작업반에 콤퓨터실을 새로 꾸리고 원료배합과 계량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천연광물로 석탄연소첨가제를 개발도입하여 소성로의 온도를 종전에 비해 150℃이상 더 높여 저열탄을 가지고도 질좋은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지배인 김태영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 규산염공학연구소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소성종합작업반의 소성로를 대담하게 개조함으로써 석탄을 적게 쓰면서도 높은 온도를 보장하여 질좋은 크링카를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대용원료리용을 비롯하여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 세멘트의 질을 더욱 높이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을 세멘트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얼마전에도 공장의 일군들과 소성종합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고압송풍기의 전동장치를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개조함으로써 설비의 성능을 제고하면서도 가동률을 훨씬 높이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전차제동장치 등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을 받아들여 원료종합작업반 운반기재들의 실동률을 높여 원석운반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속에 세멘트생산에서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함흥세멘트공장에서

함흥세멘트공장에서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5월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이달에 들어와서도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들을 개건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질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하여 함흥시안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고있다.

공장에서는 특히 생산공정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건하여 생산능력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 수리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소성공정에 판콘베아와 요동식공급기, 요출통을 새로 제작설치하여 5호소성로의 시간당 생산량을 종전보다 2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원료공정에서 건식작업방법과 습식작업방법을 배합하여 조합원료의 생산량을 1.5배로 올리는 성과도 거두었다. 기술과 성원들과 제품작업반, 전기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감속기를 개조하여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기계의 성능을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전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실험실의 기술자들은 공정별에 따르는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기술관리를 진행하면서 주변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도 질좋은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에서는 운수작업반에 수리기지도 그쯘하게 꾸려놓고 륜전기재수리를 자체로 하여 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나래치고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이 타번지는 속에 일터마다에서 날마다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아나선 원료작업반과 소성작업반, 제품작업반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를 깐지게 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정 론

문 암 의 석 수 소 리

문암!

세상에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자강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문암혁명사적지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포탄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준 군수공장이 이곳에 자리잡고있었다. 오랜 세월 이 산정에 인적이 드물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곳에 군수공장이 존재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었던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암이라는 이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운명수호의 필수적가치를 가지고 귀중한 수업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과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혁명의 총대를 강화하고 튼튼히 틀어쥐여야 합니다.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는 혁명의 총대가 약하거나 흔들리면 인민대중의 운명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정적을 깨며 발자국소리가 울린다.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내짚는 그 소리가 굴벽에 부딪쳐 되돌아온다.

얼굴에 주름깊은 로인들이 우리와 함께 걷고있다. 박영호, 류무희, 조은걸, 김순돌, 주계월, 박금순, 이들이 바로 이 포탄생산현장의 주인공들이다. 무수한 공로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80고령이 된 이들이 력사의 증견자로 남았다. 이들은 문암의 굴속에서 생사고락을 나누며 조국을 침범한 침략자들을 소멸하는 포탄을 만들어내던 귀중한 동지들이였다.

뚝—뚝—

인적드문 굴속의 정적을 깨뜨리며 석수가 떨어진다.

보이지 않는 바위짬을 뚫고 여돌찬 음향을 내며 떨어지는 석수소리는 완결된 하나의 명곡처럼 뇌리에 기억된다. 천정에서 소리없이 맺혔다가 떨어지군 하는 그 소리는 어둠속에서 존재하는 중대한 이야기의 서곡을 울려주는듯 하다.

가슴이 쨍해진다.

이 땅에는 공기좋고 물맑은 산천도 많건만 어찌하여 이런 습한 굴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였는가. 기껏해서 열다섯, 열여섯의 나이였던 그들이 어찌하여 이런 컴컴한 굴속을 찾아오게 되였는가. 연필을 손에 쥐고 한창 배울 나이에 그들은 왜 포탄을 깎게 되였는가. 구수한 흙냄새를 맡으며 농사짓던 사람들이 박격포탄을 만들게 된 사연은 무엇인가.

리유가 있다.

농사지어 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듯이 포탄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뜻이 있다. 침략자들에게 포탄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돈에 대한 무서운 욕망이 있지만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포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뜨거운 심장이 있으며 가장 열렬한 애국의 노래가 있다.

이들은 미국놈들의 포탄에 부모형제를 잃은 사람들이였다. 무차별적인 폭격에 온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다. 시커먼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온몸을 전률시키는 공포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금방 말을 주고받던 어머니가 포탄에 맞아 피흘리며 숨질 때 그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문암의 포탄생산자들은 바로 이것을 똑똑히 체험한 사람들이였다.

바로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전선으로 탄원하였던 사람들이였다. 나이가 어리다고 군대에 받아주지 않으면 군대사촌이 되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호소하며 복수의 피를 끓이던 소년소녀들이였다.

군수공장 종업원모집소식을 듣자마자 오빠의 손을 잡고 열이틀동안 걸어서 이곳을 찾아왔다는 김순돌로인, 일할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육중한 포탄을 만들어내겠는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라는 김책동지의 엄한 질책도 마다하고 석수를 첨벙첨벙 밟으면서 굴안에 들어갔다는 박영호로인… 평양에서, 신의주에서, 온 나라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 굴속에서 일하게 되였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였다.

아니 죽음보다 더 무서운것을 본 사람들이였다.

포탄이 없으면 내가 죽고 내 어머니와 동생이 죽으며 이 나라가 통채로 침략자의것으로 될수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나 하나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것임을 체험한 사람들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포탄을 만들며 웃을수 있었던것이다.

고지에서만 삶과 죽음이 엉켜돌아가는것이 아니다. 침략자의 포탄은 제놈들을 격멸할 무기를 만드는 곳을 먼저 찾는다. 그래서 전쟁마당에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은 매 순간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살아야 하는것이다.

나라를 찾은 기쁨에 창조의 희열도 컸던 조선사람들의 머리우에 전쟁의 폭탄을 소나기처럼 퍼부은 미제침략자들, 그놈들을 쓸어버리기 위하여 포탄을 만들던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들이 여기에 생생히 남아있다.

석수바위에 이끼가 끼도록 많은 세월이 흘러왔지만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이 굴, 저 굴에서 맞부딪쳐오는것만 같다.

그들은 맨손으로 굴속에 들어와 암벽을 까내고 고인물을 퍼내면서 완강한 투쟁을 벌려 수천㎡에 달하는 생산면적을 조성한 문암의 개척자들이였다. 적들의 야수적인 폭격속에서도 기계설비들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설치하고 포탄을 만들어 전선에 보내준 사람들이였다.

석수소리는 그들의 길동무였다.

보통의 굴에서는 석수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원쑤를 쳐물리치는 포탄을 만들어내는 굴속에서 울리는 석수소리는 거대한 뜻을 안고있었다.

식사시간마저 아까워 기대를 돌리며 끼니를 에울 때 온몸을 적시던 그 석수소리는 어서 포탄을 만들어 전선에 보내달라는 용사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리였다. 퍼내고 퍼내여도 멈춤이 없이 벽에서도 흘러내리고 바닥에서도 솟구치고 천정에서도 떨어지던 그 석수는 젊은 혈기에 덮쳐드는 졸음을 쫓아주며 기술을 배우라, 기능을 련마하라고 웨치는것 같았다.

원쑤의 폭탄에 피흘리며 쓰러지던 이 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의 웨침을 그 소리에서 들으며 ㎝, ㎜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까막눈들이 병기학을 터득하였다. 1㎜안에 그것을 또 1,000으로 나눈 단위가 있다는것을 알리 없었던 그들이 단 며칠만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포탄조립기술에 정통하여 각종 규격의 포탄들을 척척 만들어내게 되였던것이다.

피곤에 몰렸을 때면 세차게 쏟아져내리는 석수에 온몸을 시원히 적시던 로동자들의 얼굴이 우리를 마주보는것만 같다.

랑림산맥 뒤흔들며 기계는 돌아 포탄을 깎는 손에 정열이 뻗친다, 용선로 프레스에 투지를 다지며 철벽의 보위력을 축적해간다, 조국의 영예 지켜 선봉에 나선 우리는 영웅조선 강철의 전사다. …

위대한 수령님의 과업을 받고 포탄생산현장에 달려와 원고지를 석수에 적시면서 포탄생산자의 노래를 짓던 시인, 작곡가의 모습도 생생히 떠오른다. 리북명 작사, 리면상 작곡으로 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포탄을 만들어내던 로동자들의 명랑한 얼굴들이 보이는것만 같다.

전승의 력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만 창조된것이 아니였다.

불타는 고지아래 땅속에서도 위대한 전승의 력사가 창조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1211고지의 용사들을 찾아 전선천리를 달리시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총포탄을 만들어내는 군수로동계급과 함께 계시였다. 이 나라의 병사들과 포연을 함께 헤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전선에 무기를 보내주는 영웅적군수로동계급과 석수도 함께 맞으시였다.

그날의 석수소리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솨—솨— 소리내며 쏟아지던 석수였다.

바로 그 석수가 우리 수령님의 어깨우에 사정없이 쏟아져내린것을 생각하면 눈굽이 젖어들고 가슴이 미여진다.

그이는 해방되여 불과 5년만에 미제에 의하여 전쟁을 강요당한 조선인민에게 멸적의 총포탄으로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세워주시고 불길속에서 자주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애국자이시였다.

주체42(1953)년 2월 27일 포탄생산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던 그때 북방의 사나운 눈바람을 헤치시고 몸소 이곳을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게 된 로동자들의 기쁨 얼마나 컸으랴.

굴앞에서 차를 세우시고 마중나온 일군들의 손을 잡으시며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 공장을 새로 꾸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

천리 먼길을 오신 피로도 아랑곳없이 좁은 굴안을 따라 포탄생산현장을 걸으시며 여기에서 용해작업까지 하니 얼마나 애로가 많겠는가고 말씀하시던 그날의 음성이 귀전에 울려온다.

굴안은 좁아도 승리의 대통로에서 사는 희열에 넘쳐 무기를 만드는 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포탄이 짱짱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굴에서 포탄이 나온다는것을 전사들이 알기만 하면 신심을 가질것입니다, 영웅적로동계급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포악한 침략자와도 싸워 이길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던 말씀,

나어린 선반공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호미자루를 잡고 농사를 짓던 동무들이 이렇게 기술을 배워 포탄을 깎고있다고, 전쟁이 끝나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많이 하자고 하시던 그 말씀 얼마나 소중하였던가.

석수가 심하여 발목까지 물이 찬 현장, 물을 먹은 전기설비들이 항시적인 위험을 조성하고있는 현장의 깊은 곳까지 서슴없이 걸음을 옮기시는 그이의 앞을 막아나서며 일군들은 눈물속에 아뢰였다.

여기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근엄한 안색으로 말씀하시였다.

내가 전선의 용사들로부터 포탄을 더 많이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포탄가공현장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냥 돌아가겠는가!

포탄을 만드는 로동계급이 그처럼 귀중하시여 가시다가는 돌아서시여 보고 또 보시고, 사랑넘친 눈길로 그렇게 보고 또 보시다가는 다시 다가가시여 기름묻은 로동자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던 자애로운 수령님,

석수가 세차게 흘러내리는 굴안에서 이처럼 위대한 혼연일체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컴컴한 굴속에서 누구도 알리 없고 눈에 뜨이지 않던 녀성로동자의 발, 신발이 없어 남자운동화를 잘라서 걸친 녀성로동자의 발을 보시고 한참이나 아무 말씀없이 서계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 어찌 잊을수 있으랴.

전쟁에 시련이 많다고 녀성로동자들에게 신발 하나 똑바로 신기지 못해서야 되겠는가고 그리도 절절하게 말씀하시며 신발공급대책을 세워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눈앞에 어려온다.

포연서린 이 나라의 고지와 마을들에서처럼 그 누가 알지 못하는 이 깊은 굴속에도 사랑의 력사가 진하게 슴배여들고있었다.

포탄깎는 소리가 울리는 현장에서 협의회를 여시고 우리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얼마나 정의롭고도 진실한 울림이 넘치고있었던가.

지금 전선에서는 인민군용사들이 포탄이 없어서 밤에는 고지를 점령하고 낮에는 다시 내주고있는 형편입니다. 전선용사들은 포를 쏘다가 포탄이 떨어지면 몸이 육탄이 되여 싸우면서 포탄을 실컷 쏴보았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며칠전에도 1211고지에서 싸우는 전사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포탄이 없어서 더 많은 미국놈들을 잡지 못하니 포탄을 많이 보내달라는 가슴아픈 사연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선용사들의 이 요구를 풀어주기 위해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

그 말씀에 로동자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장군님의 요구이고 전선의 형편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포탄생산을 기어이 2배이상으로 해내겠습니다!

로동계급의 신념에 넘친 이 목소리에 화답하신 우리 수령님의 말씀,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포탄생산을 반드시 2배이상 끌어올려 미국놈들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깁시다!

포연을 안고 오시여 석수를 안고 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바래워드릴 때 젖어있는 그이의 옷자락을 마음속에 부여잡고 오열을 터뜨렸던 로동자들이여, 말 못하는 석수에 원망을 터치면서 암벽을 두드리던 그대들의 주먹소리 이 벽, 저 벽에서 메아리쳐온다.

피눈물배인 력사속에서 석수는 군수로동계급과 더 가까워졌다.

우리 수령님께서 맞으시던 석수였기에 그들에게는 차거워도 따뜻하게 느껴지던 석수였다. 용해장에서 먹는물처럼 마실 때 사탕물보다 더 달게 여겨지던 석수였다.

그들이 일하던 현장의 굴벽에는 화약내배인 글발들이 보인다.

《수령이 제시한 과업관철에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누렇게 색이 바래였어도 살아숨쉬듯 엄숙한 뜻을 새겨주는 그 글발을 쓸어보니 바로 이 글발을 새기던 사람들의 체취가 느껴진다.

자기가 새긴 이 글발을 바라보면서 적들의 폭격에 전기가 오지 않으면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하루계획을 300%, 400%로 수행하던 문암로동계급의 숨결이 페부에 스며든다.

승리는 이렇게 왔다.

평양의 하늘가에 축포가 터져오를 때 굴안에서 쏟아지는 석수가 축포처럼, 꽃보라처럼 느껴졌다는 이들의 추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전승의 날을 맞아 기쁨에 넘쳐있는 문암의 포탄생산자들을 또다시 찾아주신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꽃보라처럼 쏟아지는 석수를 어깨우에 맞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지하에 이런 훌륭한 공장을 건설하고 군수생산을 보장하였으며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미국놈들은 야수적인 폭격으로 우리 나라 온 강토를 재더미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페허우에 더 큰 공장을 건설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갈것입니다!

문암의 포탄생산현장은 전후 반세기이상 정적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적이 아니다.

굴안의 모든것이 우리의 망막속에서 그때처럼 움직이고있다.

장갑도 끼지 못한채 물이 차는 굴바닥에 자갈을 묻어나가던 로동자들의 발자국소리가 그때처럼 울리고있다. 키가 모자라서 발판을 2개나 놓고 올라서서 선반을 돌리던 어린 로동자의 모습도 생생히 비쳐진다. 몇개 깎았는가가 아니라 몇% 넘쳐 수행했는가를 기억하며 포탄을 연마하고 또 연마하던 완성공들의 모습도 그대로 살아움직이는것만 같다.

정전이 되면 《놈들이 또 폭격했구나!》하고 부르짖으며 복수심이 용솟음쳐 피대를 손으로 당기던 모습들, 강냉이알도 세여먹고 씁쓸한 마타리국도 달게 먹으면서 일하던 불굴의 그 모습들, 불이 없으면 콕스불을 켜고서라도 포탄을 연마해나가던 장한 모습들,

우리는 오직 복수심만이 불탔다, 이놈들, 죽어봐라!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미국놈들이 내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놈들이 내 고향, 내 학교를 폭격했는데… 귀중한 내 조국을 재더미로 만들었는데 무엇이 두려웠겠는가고 하는 로병들의 말이 왜 이리도 심장을 울리는가.

피덩이같은 포탄이다.

바로 그렇게 복수의 피로 빚어진 포탄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배가 불룩한 육중한 포알들이 꼬리를 쳐들고 주런이 누워있다.

전투명령만 내리면 금방이라도 전선에 나갈 차비인듯 윤택한 그 빛갈 변함이 없이 싱싱한 모습으로 줄서있는 포탄들,

얼마나 소중한 포탄들인가.

그 한발을 성큼 안아보려니 녀자의 힘으로 쉽게 들리지 않는다.

무거운 그 철덩이를 쓰다듬어보니 배띠같은 하얀 글자들이 나타난다.

《120㎜ 1—53—32》, 《120㎜ 1—53—33》…

바로 이것이 전승의 날까지 새겨진 마지막번호들인것이다.

포탄들을 싣고 전선에로 떠날 자동차들의 발동소리가 저 굴밖에서 부릉부릉 울리는것만 같다. 그 차에 실려 전선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고백하는듯 우리를 뜨겁게 바라보는 포탄들이여,

그 마지막포탄들을 보며 전쟁과 승리에 대하여 체험하는 성스러운 감정을 무엇에 비길수 있으랴.

전쟁과 평화의 진실을 안고있는 력사의 현장이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 철리가 끝없이 샘솟는 곳이다.

남의 나라를 강탈하기 위하여 포탄을 만드는자들은 이런 진실을 듣기 싫어한다. 남의 재부를 도적질해가기 위하여 무기를 만드는 침략자들은 문암과 같은 력사의 증견장이 세상에 공개되는것을 두려워할것이다.

그러나 들어보라!

백발이 된 문암의 포탄생산자들은 미국놈들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아들딸, 손자손녀들과 함께 멸적의 포탄을 짱짱 생산하여 침략자의 아성을 영영 날려보낼것이라고 말한다. 80고령에도 포탄을 만들어낼 증오의 웨침을 터치는 그 목소리는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것인가.

그들은 아직도 성차지 않아한다.

미국놈들이 이 지구상에서 못된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있는가?

증오의 눈물을 머금고, 두주먹을 부르쥐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한손에는 마치를,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계급전에서 살아온 조선사람들의 가슴속에 꼭같이 간직된 총결산의 웨침이다.

조선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결코 문암이 말하는 진실을 막을수 없다.

조선사람들이 왜 오늘도 무기를 만드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새살림에 대한 꿈이 유린당할 때 인간은 어떻게 분노하는가.

침략자들은 생활의 이 본질부터 터득해야 한다.

자기를 겨누고있는 온갖 무장들에 대한 반타격수단들이 없이는 미래의 행복을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조선사람들은 잘 알고있다. 평화란 결코 제국주의에 굴종하여 얻어지는 재부가 아니였다. 제국주의에 굴종하여 자주권을 잃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문암의 석수소리는 세계에 웨치고있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무엇때문에 거대한 령토와 자원과 인구를 가진 나라와 동등하게 군사력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필요성을 누가 제공하고있는가. 우리가 창조하는 재부들이 인민생활에만 고스란히 돌려지고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에만 돌려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조선사람들이 핵과 미싸일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미국은 나라의 번영에 대한 조선인민의 소원을 왜 그처럼 악랄하게 짓밟는가. 미국이 지구의 곳곳에서 화약냄새를 풍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인가. 전쟁에서 얻은 리익을 경제적리득으로 바꾸기 위해서인가.

놈들은 참말로 어리석다.

존엄높은 이 나라 인민이 미국의 오만한 행위를 그저 보고 듣기만 할것인가. 절대로 아니다. 미국의 침략적, 지배적본성이 희미해지는것이 아니라 나날이 더 포악해지고 있기에 조선의 과학자들은 《더 높이! 더 빨리!》라는 말을 씹으면서 보다 강력한 반타격수단들을 만들어낸다. 자기가 만든 총포탄으로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박은 조선사람들은 연길폭탄정신, 군자리정신이 어떤것인가를 다시 보여줄 기회만을 기다리고있다.

처벅—처벅—

문암의 기나긴 굴을 걸어나올 때 뇌리를 치는 생각들이 많다.

이 세상에 무기를 만들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두가지 심리가 존재한다. 침략자의 심리와 수호자의 심리이다. 남을 침략하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자들에게는 죽음만이 차례질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과 나라의 수호를 위하여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꽃다발이 차례질것이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한가지를 모른다.

수호자는 자기것을 지켜낼뿐아니라 자기를 노리는 침략자를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 조선사람들은 행복과 번영에 대한 갈망이 큰것만큼 징벌심이 크다. 일단 전쟁만 일어나면 미제침략군의 존재에 종지부를 찍고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포부를 가지고있다. 이 포부는 60년이상 축적되여온것이다. 감정으로만 축적된것이 아니다. 자기 결심을 언제 어느때든 실천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동시에 축적해왔다.

미국이 무인기와 핵잠수함, 순항미싸일, 점타격기술로 우리를 타격하려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처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여있다. 나의 안해와 아들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과 귀중한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과학자들은 반타격을 위한 과학, 평화를 위한 과학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할것이다. 미국과의 싸움이 앞으로 한세기이상 지속된다고 하여도 우리의 후대들 역시 그렇게 준비할것이다.

물론 우리는 미싸일과 핵으로 남을 해친적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 그러나 자기를 핵이나 미싸일, 점타격으로 해치려는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핵타격, 미싸일타격, 점타격으로 요정내야 한다는것이 전인민적요구이다. 인민의 이 진정한 요구를 받아들인 조선의 무기생산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사람들이다.

해방원의 수영장에서 마음껏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조선사람들의 존엄높은 모습을 눈여겨보라. 어제날 굴안의 무대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포탄생산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던 사람들의 손자손녀들이 행복의 노래와 멸적의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있는가를 똑똑히 들어보라.

조선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이 오늘도 전쟁의 야심에 잠 못 이루고있지만 문암에서 포탄을 만들어낸 로동계급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후대들이 어떻게 무기를 만들어내는가를 문암의 석수소리가 말해줄것이다.

석수는 어찌하여 오늘도 떨어지고있는가.

조선사람들은 총이 없고 군대가 없고 자주적대가 없어 나라를 빼앗겼던 때의 력사적교훈을 잊지 않는다. 100년전, 그보다 훨씬 오랜 력사의 교훈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이 문제에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있다. 우리는 총대우에 행복도 번영도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되는 인민이다. 쌀보다 귀중한것, 배고픔보다 더 큰 아픔이 무엇인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한 민족이다. 현시대와 래일의 시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가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 무엇도 조선을 누구의 노예로도 만들수 없고 누구의 속국으로도 만들수 없다.

우리의 후대들과 인류의 모든 후대들이 총대를 생명으로 하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의 본질을 소스라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여도 그 소리 변함없이, 진함도 없이 꾸준히 떨어지며 문암의 석수는 이렇게 웨치고있다.

후손들이여, 깎으라, 더 많이 깎아내라.

선렬들이 다하지 못한 복수를 합쳐 미제침략자들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할때까지 주저말고 쉬임없이 징벌의 포탄을 깎고 또 깎으라.

그리고 잊지 말라, 영원히 잊지 말라.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이것을 기억시키고 또 기억시키며 문암의 석수는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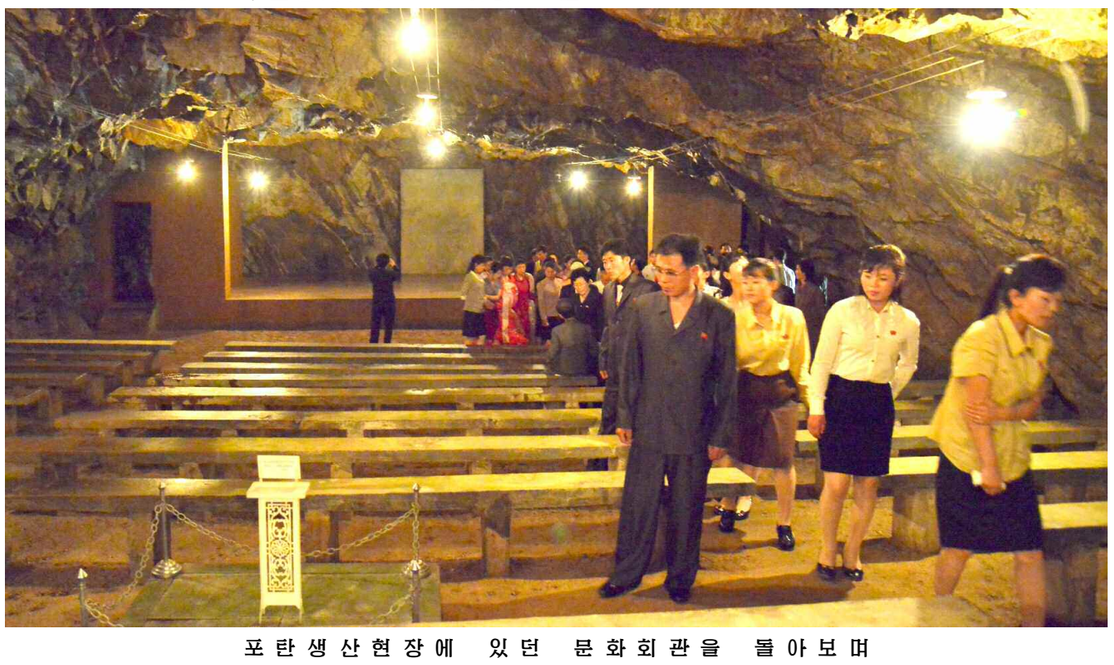
총대없이 못사는 이 나라의 아들딸들을 선군의 천만리, 병진의 천만리에로 불러주며 문암의 석수는 우리 심장속에서 끝없이 흘러내린다.

뚝—뚝—뚝—

운명의 영원한 생명수처럼!

송 미 란

문암의 군수로동계급이 만들어내던 포탄들



포탄생산현장에 있던 문화회관을 돌아보며

못 잊을 추억을 안고 혁명사적지를 찾은 전시공로자들 본사기자 찍음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밑에 건축물을 백점, 만점짜리로 완성해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집단적경쟁열풍속에 기적을 창조한 격전의 100여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 과학자들을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려 크나큰 심혈을 바쳐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세계를 건설에 참가한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지금 뜨거운 격정속에 새겨안고있다.

공사장전역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놀라운 건설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의 이 구절을 자자구구 새기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 그리고 수도건설위원회와 대외건설지도국,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등 성, 중앙기관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영광의 그날까지 100여일간의 격전의 나날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당창건기념일까지의 불과 7개월사이에 24동에 천수백세대에 달하는 다층살림집들과 10여동에 달하는 공공건물들을 일떠세운다는것은 보통때의 상식을 초월하였다. 그러나 현장지휘부의 목표는 그 기간마저도 더욱 단축한것이였다.

선하부구조건설원칙에 따르는 구획내 하부망공사, 단 두달동안에 수행해야 할 건물골조공사, 외부미장 및 지붕공사, 내부공사와 구획정리…

그야말로 화약에 불달린것처럼 내달려야 수행할수 있는 월별공정계획이였다. 각 시공단위의 지휘관들과 일군들,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승리의 결승선을 향해 사회주의경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방대한 구획내 하부망공사와 동시에 건물기초공사를!

우승의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만만한 배짱과 치밀한 계획속에 시공단위들에서 현장지휘부적인 전투목표를 뛰여넘는 공격전, 립체전을 펼치였다. 매일 수만㎥의 절토 및 성토과제가 수행되여 10여일만에 공사장의 입구에 있던 둔덕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지대정리와 동시에 연수십㎞에 달하는 오수 및 우수망, 전기 및 체신망구조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쭉쭉 뻗어나갔다. 이런 속에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소속부대아래 정상순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착공식이 있은지 4일만에 공사장적으로 제일먼저 10호동 살림집기초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하였다. 그 소식은 삽시에 온 건설장에 전해졌고 그것은 시공단위들사이의 집단적경쟁열풍을 배가하는 도화선으로 되였다.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바로 이것이 남먼저 들어서려는 사회주의경쟁열의는 지상골조공사가 본격화되면서부터 더욱 높아졌다.

현장지휘부에서 내놓은 대형정밀휘틀시공방법을 공법의 요구대로 정확히 받아들이는데 공사속도와 질을 높이는 비결이 있었다. 조선인민군 김금철소속부대, 대외건설지도국, 조선인민군 임종춘소속부대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내수합판과 기공구 전량을 자체로 해결한데 기초하여 이 시공방법을 도입하여 단번에 한개 층씩 일떠세우며 전진해나갔다.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뜻깊은 건군절을 앞두고 9호동, 10호동 살림집골조공사완공의 첫승전포성을 높이 울리였다. 그들의 뒤를 바싹 따라서던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부대와 조선인민군 강명환소속부대, 김금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17호동, 18호동, 1호동, 3호동, 5호동 살림집만장우에 련이어 승리의 붉은기를 꽂았다. 대외건설지도국, 조선인민군 김응철소속부대, 수도건설위원회, 조선인민군 홍정득소속부대, 임종춘소속부대의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총공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한개 층의 골조공사기일을 처음의 절반으로 단축하면서 5월 상순까지 10여개 호동의 살림집골조공사를 드디여 끝내였다.

집단적경쟁열풍속에 날마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된 건물골조공사기간 연건축면적이 22만㎡가 넘는 살림집과 공공건물공사장들에서 수십만㎥의 콩크리트치기작업이 수행되는 놀라운 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앙양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각 시공단위의 건설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살림집과 공공건물외부미장공사와 지붕목구조공사를 빛나게 결속하였으며 공정계획을 앞당기며 내부미장공사의 많은 량과 구획정리작업도 해제끼였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격전의 100여일간은 이렇게 순간의 답보도 모르는 기적창조의 나날들로 수놓아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에서 주신 과업관철투쟁에 용기백배 떨쳐나선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충정의 돌격전, 집단적경쟁열풍에 의하여 이곳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은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며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여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병춘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보라, 병사들의 창조본때를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소속부대에서

병사의 기준

차광호소속부대가 맡은 살림집들의 복도바닥은 원래 인조석판을 깔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군인건설자들의 창조기준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맡은 살림집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보다 완벽하게 일떠세우기 위해 그들은 품이 많이 들지만 인조석갈이미장공법을 택하였다.

백색도가 서로 차이나는 수십t의 인조석알들을 크기와 모양별로 티 한점 없이 골라낸 군인건설자들은 자체로 만든 설비로 둥근형, 각형 등 여러가지 모양으로 가공하여 한알한알 박아넣다싶이 하면서 천연고급석재 못지 않게 많은 면적의 복도바닥을 처리하였다.

—속도에서나 질에서 군인건설자들이 최고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휘부일군들과 린접한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속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병사의 량심

정상순소속부대가 맡은 살림집들에 들어서면 첫눈에 띄는것이 《합격증》이다. 살림방은 물론 부엌, 베란다, 창고들의 벽면 어디에나 붙어있지 않는 곳이 없다. 한개 세대에만도 14개나 있는 《합격증》은 건설지휘부의 10명이 넘는 시공일군들이 여러가지 측량기재들을 동원하여 공사질을 깐깐히 검사한 후에 내리는 평가이다.

얼마전 부대가 맡은 수십세대 살림집들이 모두 이런 시공검사에서 합격되였다. 그때 군인건설자들은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구석진 벽체와 곡선부분에도, 창고와 베란다 그 어디에나 당의 명령지시관철에 나선 병사의 순결한 량심을 바쳐온 나날들을 뜨겁게 추억하였다.

병사의 기쁨

며칠전 건설장은 커다란 환희와 기쁨속에 들끓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이 건설한 살림집을 돌아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시공을 잘하고 있는데 대하여 평가해주시였기때문이다.

군인건설자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음에 최동국소속부대 병사들만이 아닌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하고있다.

병사의 기쁨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만족을 드리는 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근위부대의 전투력은 오늘도 변함없다

조선인민군 김웅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

김웅철소속부대라면 잘 몰라도 희천의 근위부대용사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수 있다. 위성과학자거리건설에 참가한 이 부대가 또다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여 근위부대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착공의 첫삽을 박던 그날 근위부대의 장병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맡은 대상은 덩지가 큰 살림집호동 3개와 공공건물 1개, 반면에 건설력량은 다른 단위들에 비해 3분의 1이나 적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된 빛이 어려있었다. 하지만 불가능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부대의 책임일군인 김웅철동무가 침묵을 깨뜨리며 말하였다.

《우리는 명령받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입니다. 근위부대의 전투력으로 다시한번 통장훈을 부릅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해왔고 녕원과 희천발전소, 창전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주요전구마다에서 근위부대의 영예를 떨쳐온 장병들이 조선속도창조투쟁의 앞장에 용약 떨쳐나섰다.

4개 대상에서 동시에 립체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제일 걸린것이 로력과 자재보장이였다. 부대지휘관들은 난관극복방도를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는데서 찾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펄펄 휘날리는 붉은 기발들과 호소성이 강한 직관물들이 100여점이나 전투장 곳곳에 전개되였다. 방송선전차에서는 피를 끓게 하는 방송원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격동된 목소리가 쉼없이 메아리쳤다.

혁명의 북소리, 진격의 나팔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어렵게만 생각되던 문제들이 풀려나갔다. 돌격대에 탄원한 100여명의 군인들이 한개 구분대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량을 맡아나섰다. 그들은 한명이 두몫, 세몫씩 일감을 걸머지고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에 진입하였다. 녀성군인이 대부분인 30명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한몫 맡아나섰다. 그들은 집중과 분산의 방법으로 전투장마다에 나가 미장도 하고 혼석도 나르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울려갔다. 군관들은 화선지휘관이 되여 한 교대씩 맡고 솜씨있는 휘틀조립공, 스키프운전공, 미장공이 되여 건설장의 전투적사기를 한층 더 높여나갔다. 운수대대의 자동차운전사들은 골재운반을 맡아 하루 천여리씩 달리면서 근 30만장의 벽돌과 필요한 건설용설비들을 만들어냈다.

어느날 공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뜨거운 마음이 어린 후방물자를 안고 또다시 찾아온 부대의 가족들과 지원자들이였다.

그들속에는 휴가를 바친 군관들과 원호물자를 가지고온 가족들도 있었고 남편의 뒤를 이어 이 길에 나선 안해도 있었다. 그들의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이글거린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우리들도 한 전호에 선 근위부대의 전투원들입니다.》

근위부대의 장병들과 가족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남들같으면 엄두도 못낼 방대한 공사과제를 끝끝내 해냈다.

골조공사와 외부미장을 장마철전으로 끝내여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이곳 장병들은 지금 더욱 기세를 올리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의 힘찬 투쟁으로 3개 호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시대의 창조물로 더욱 완성되여가고있다.

력량 대 공사실적에서 최고기록을 세운 이곳 부대의 기적적인 성과는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는데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

조선인민군 엄명수소속부대에서

얼마전 우리는 조선인민군 강명환소속부대아래 엄명수소속부대 군인들이 일하고있는 1호동 1현관을 찾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공에서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복도벽면미장작업으로 붐비는 군인들속에서 우리는 부대의 지휘관인 김영일동무를 만났다. 아직은 공사가 한창인데 비하여 멋들어지게 시공된 계단란간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군인건설자들이 1, 2층 계단란간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정확히 시공한 결과 얼마전 부대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여기서 진행되였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곡선미가 잘 살아나는 계단란간을 따라 우리는 림성철소속구분대의 2소대가 맡은 살림집내부공사전투장에 들어섰다.

10여명의 군인들이 여러명씩 나뉘여 문틀설치와 창문틀장식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오금석, 신영광동무들이 이긴 혼합물이 방사포탄마냥 쉼없이 미장판들에 공급되고있었다. 미장칼을 잽싸게 휘두르는 군인들속에서 살림방문틀미장작업을 진행하는 분대장 전광일동무의 걸싼 일솜씨가 우리의 주의를 끌었다. 한참 미장작업을 하던 분대장은 방효성동무에게 미장칼을 넘기였다. 문틀미장작업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요구를 하나하나 일깨워주는 분대장, 각진 부위를 솜씨있게 처리해나가며 자기도 이제는 당당한 기능공이 되였다고 뻐기는 방효성동무의 이야기에 작업장에는 한순간 웃음꽃이 피였다.

부소대장인 정광혁동무는 저렇게 사관들이 병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쓴 보람이 있어 소대가 속도뿐아니라 질보장측면에서도 앞장설수 있다고 우리에게 자랑담이 이야기하였다. 자기들의 부모형제가 살림방을 꾸리는 심정으로 모든 작업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보장해나가는 소대원들을 바라보느라니 벽면과 천정마다에 찍힌 《합격》이라는 두 글자에 바쳐진 우리 병사들의 깨끗한 량심을 그대로 받아안는듯싶었다.

우리는 군관 김영일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1현관 지붕우에도 올랐다.

지붕목구조공사를 끝낸 이곳에서는 장식보들에 대한 타일붙이기마감작업이 한창이였다. 부대적인 살림방꾸리기작업에서 앞장섰던 리승철소속구분대의 리성민, 림창남동무를 비롯한 군인건설자들이 품이 많이 드는 타일메지작업에 정성을 바쳐가고있었다. 지붕우의 이쪽저쪽을 왔다갔다 하며 멀리에서도 가까이에서도 보고 또 보며 병사들에게 메지간격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는 군관을 가리키며 동행한 지휘관이 그가 바로 부대의 책임일군인 김영길동무라고 귀띔해주었다.

질보장에서 앞장선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그는 말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집행에서는 한점의 티도 있을수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한결같은 량심의 대답이며 실천입니다.》

본사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 23 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와 룩셈부르그대공국 대공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말라보

제23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앞

나는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속에 적도기네 말라보에서 제23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열리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회의에 참가한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대표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의 농업 및 식량안전》을 기본의제로 하고 대륙의 평화와 안전,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게 되는 이번 수뇌자회의가 모든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열의속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아프리카동맹 및 그 성원국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립장을 재확언하면서 이번 수뇌자회의가 아프리카의 부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6월 23일 평 양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대공국 대공
앙 리 전 하

나는 룩셈부르그국경절에 즈음하여 전하와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인민에게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6월 23일 평 양

박 봉 주 총 리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현지료해

【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내각총리는 생산적앙양으로 들끓고있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년대기마다 우리 당을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온 대안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총리는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서 대상설비들의 기술적특성과 가공 및 조립정형을 알아보고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대상설비생산을 늘이고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한편 총리는 버섯공장건설장을 료해하고 현지에서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서 가물피해를 극복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철산군 선주리당위원회에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모내기전투에 앞서 선동원의 날 운영을 잘하여 그들이 들끓는 포전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선동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선동원들의 역할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내기전투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쭉쭉 올라가게 되였다. 결국 리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모내기를 훨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모내기전투에 이어 김매기전투가 벌어지는데 맞게 선동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자료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해설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포전마다에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얼마전 제1작업반의 선동원들은 당보에 실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가지고 위대성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렸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선동원들은 지금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김매기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로농통신원 방대삼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어떤 인민인가 하는것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김일성

그날은 평화로운 일요일이였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때로부터 어언 64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이 땅의 새 세대들에게 그때의 사연을 전해줄 전쟁의 참화를 직접 체험한 세대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렀다 해도,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여도 력사는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적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리승만역도를 사촉하여 조선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삼켜보려고 불의에 침공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평화로운 일요일이였다.

1950년 6월 24일부 《로동신문》 1면에는 《로동법령실시 4주년》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게재되였다.

사설은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밑에 로동법령이 실시된 후 4년만에 공화국북반부 로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공화국정부의 일상적인 배려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향상되고있다고 전하였다. 사설은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이미 쟁취한 로동법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것이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남북반부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하여 2개년경제계획의 기간단축 및 초과완수의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3면에 실린 보도기사 《해마다 확장되는 북반부 각 정휴양소시설》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해금강, 삼방, 주을(당시) 등 공화국북반부 각지의 여러 명승지에 설치된 정양소와 휴양소들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면서 석왕사, 해금강, 묘향산 등 16개소에 근로자들을 위한 정휴양소가 개설되여 수만명의 수용능력을 갖춘데 대하여 전하였다.

보다싶이 공장들마다에선 창조의 마치소리 높이 울리고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푸르싱싱한 벼포기들을 바라보며 흘러내리는 땀마저도 기쁨에 넘쳐 내리닦던 이 땅이였다. 자기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고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던 인민들이였다.

하지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새 생활이 약동하던 평화로운 조국강토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워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깡그리 짓밟았다. 그것도 평화로운 일요일의 그 새벽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아직도 단잠에 들어 꿈에 도취된 아이들의 입가에 행복의 웃음기가 어려있었을 그 시각이였다. 일요일의 휴식계획을 밤새도록 토론하며 래일의 희망을 속삭였을 청춘남녀들, 새벽잠이 없다는 로인들마저도 잠결에 미처 정신차릴새 없었을 그 시간이였다.

평온했던 일요일의 그 새벽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한없이 순박하고 선량한 인민의 기쁨과 꿈을 짓밟고 그들의 머리우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웠다. 이날 이른새벽 남조선괴뢰군은 미리 준비된 침략전쟁도발계획에 따라 미제침략군 고문들의 지휘밑에 38° 선전역에 걸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전선서부의 옹진-토성일대에서는 괴뢰군 1전투사령부소속 부대들이 2개 제대의 작전대형을 편성하고 포병화력의 지원밑에 침공하여왔다. 그중 태탄과 벽성의 2개 방향으로 괴뢰수도사단 17련대, 개성지역에서는 괴뢰1보병사단이 연안-평천, 개성-금천, 장단-구화리의 3개 방향에서 침공을 개시하였다. 련천지역에서는 괴뢰7보병사단이 2개 제대의 전투서렬을 편성하고 동두천리-련천, 포천-김화의 2개 방향에서 침공해들어왔다.

전선동부에서는 괴뢰군 2전투사령부소속 부대들이 1개 제대의 작전대형을 편성하고 침공해들어왔다. 괴뢰6보병사단은 2개 제대의 전투서렬을 편성하고 춘천-화천, 어론리-양구의 2개 방향에서 침공하여 화천방향으로 침입하였으며 동해안에서는 소치-양양, 서림리-양양, 북분리-양양의 3개 방향에서 괴뢰8보병사단이 쳐들어왔다.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한 적들은 해주, 금천, 철원 및 그밖의 여러 방향들에서 38° 선이북지역으로 1~2㎞까지 쳐들어왔다.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은 공화국경비대에 38° 선이북지역으로 침입한 적들을 격퇴할것을 명령하였다. 공화국경비대는 모든 진지와 초소들에서 적들과 대항하여 가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공화국내무성은 보도를 발표하여 리승만괴뢰도당에게 모험적인 전쟁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약 38° 선이북지역에 대한 모험적전쟁행위를 즉시 중지하지 않는다면 적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결정적대책을 취하게 될것이며 동시에 이 모험적전쟁행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엄중한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것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전쟁의 불길을 더욱 확대하는 길로 나갔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의 평화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나 경고로써는 더는 지킬수 없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를 여시고 조국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적들에게 반공격을 가할 단호한 대책을 취하시였으며 공화국경비대와 인민군대가 적들의 무력침공을 저지시키고 즉시 반공격에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다.

치렬한 방어전을 전개하여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킨 공화국경비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부대들과의 협동작전밑에 38° 선이북지역에 침입한 적들을 완전히 격퇴하고 원쑤들을 무찌르며 반공격에로 넘어갔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강요된 이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미제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요일에 시작된 이 전쟁이 그날로부터 삶과 죽음, 피와 눈물, 사랑과 증오로 이어지는 1 129일간이나 지속될줄은 그때까지는 아직 그 누구도 알수 없었다.

본사기자 김현철

첫 전시가요

가요 《조국보위의 노래》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제일먼저 울려퍼진 첫 전시가요일뿐아니라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명곡이다. 미제의 사촉하에 리승만괴뢰도당이 우리 조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울려퍼진 그 시각부터 이 노래는 정의의 혁명전쟁, 조국수호의 전민항전으로 침략자들을 무찌르며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할줄 모르는 정신적원천의 하나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습니다.》

작품의 작사자인 조령출과 작곡가 리면상이 조국을 보위할데 대한 노래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강한 충동을 받은것은 벌써 전쟁이 일어나기 퍽 오래전부터였다. 후날 전쟁로병들과 력사가들이 《전쟁전의 작은 전쟁들》이라고 일컬었던것처럼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무력간섭과 침략책동으로 하여 38° 선일대에서는 크고작은 전투들이 끊임없이 벌어지였으며 우리 나라는 이미 전쟁상태에 들어간것이나 다름없었다. 적들이 194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무려 수백차에 걸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입을 일삼고 농가에 불을 지르며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 잔인무도한 만행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두고서도 그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는 조국의 하늘을 보며 청소한 공화국의 주인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금할수 없었다. 이렇듯 엄연한 현실앞에서 시인과 작곡가 역시 강렬한 창작적충동과 함께 나라와 인민앞에 지닌 신성한 사명감에 대하여 자각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던 1950년 3월 어느날 퇴근길에 올랐던 시인과 작곡가는 가두고성기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귀를 기울이고 서있는 광경을 보게 되였다. 가두고성기에서는 방송원의 열기띤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그날 낮에 미제의 사촉을 받은 리승만괴뢰군놈들이 38° 선 우리측 지역에 또다시 침공하여 온갖 만행을 감행한데 대한 보도였다. 방송을 듣고있던 군중들도, 시인과 작곡가도 끓어오르는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저으기 흥분을 억제할수 없었던 두 창작가는 약속이나 한듯 집으로가 아니라 창작실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귀중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시고 꿈같은 행복만을 안겨주신 삶의 보금자리를 짓밟으려는 원쑤에 대한 인민의 불타는 증오심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여 가요 《조국보위의 노래》는 이렇듯 전쟁이 일어나기 석달전에 창작되게 되였다.

노래는 곧 인민군협주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에 의하여 형상되였으며 전체 인민군대와 인민들속에 급속히 파급되여갔다. 노래는 1950년 6월 25일 날강도 미제와 괴뢰도당이 끝끝내 일으킨 침략전쟁에 대하여 분노한 조선인민이 터뜨리는 원쑤격멸의 우렁찬 함성으로 되였으며 정의와 불의가 어느 편에 있는가, 조선인민은 무엇을 위하여 어떤 전쟁을 하고있는가를 세계앞에 증시한 철의 선언과도 같았다.

이 노래를 부르며 이 나라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전선으로 용약 탄원하여 달려갔으며 《정의의 총칼로써 원쑤를 무찔러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라》라는 가사의 구절을 가슴에 안고 조국의 원쑤, 인민의 원쑤, 이 땅에 끝없이 태여나게 될 수많은 후대들의 원쑤를 격멸하는 싸움터마다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

세월은 멀리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어도 《조국보위의 노래》와 함께 그 불멸의 군상들은 후손들의 심장속에 살아 천만군민을 영원한 승리에로 억세게 떠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건

나는 왜 총을 잡았는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엄숙히 열리였던 전선탄원모임을 담은 사진자료들도 전시되여있다. 평화로운 조국강산에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온 철천지원쑤 미제를 백배, 천배로 복수할것을 호소하는 열정적인 목소리와 힘찬 화답소리가 금시 울려나올것만 같은 한장한장의 화면들.

사진속에 애어린 청년들의 모습도 있다.

그들의 앞에는 생사를 판가름하는 격전장, 그러나 추호의 동요나 주저도 모르는 강인한 모습들이다.

그들중의 한 처녀는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끊어진 통신선을 찾아 몸으로 잇던 월미도의 영옥이가 아닌지.

또 그들중 한 나어린 청년이 단신으로 고지를 지켜낸 불사신같은 그 영웅전사는 아닌지. 그들은 조국에 시련이 닥쳐왔던 그때 전선행렬차에 몸을 실으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었다.

《전선에서 만나자!》

그것은 요구도 호소도 아니였다.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 그것은 있을수 없는 말이였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선을 헤쳐야 할 가장 엄숙한 시각에 조국의 진정한 아들딸들사이에만 오갈수 있는 심장의 약속이 바로 《전선에서 만나자!》라는 웨침이다.

문득 취재길에서 만났던 로병들,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던 조국해방전쟁로병종대가 눈앞을 꽉 채우며 흐른다.

나이를 두살이나 불구며 입대했던 전사의 머리에도, 련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꼬마병사의 머리에도 백발이 짙다.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60여년,

전쟁로병세대와 우리 세대들사이에는 어언 인간의 한생과 맞먹는 세월의 격차가 흐르고있다.

우리는 전쟁을 영화나 책으로나 보아왔고 유적과 유물로만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조국앞에 엄중한 정세가 닥쳐올 때마다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수십년전 그때처럼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하는 모임이 열리였고 수많은 청년들이 《전선에서 만나자!》고 웨치며 멸적의 기세높이 전선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전승절경축행사장에서 만났던 한 로병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는 내 나이 80을 훨씬 넘겼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도 동무들과 같이 총을 메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는 대오에 설것이요.》

그렇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늙음과 젊음은 있어도 수호자의 사명감과 원쑤에 대한 증오는 변함이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6.25를 뇌리에 새기고사는 병사들이다.

《전선에서 만나자!》, 60여년전의 그 웨침소리는 세대를 이어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으며 선렬들의 피가 스민 조국강산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끝없이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은 다름아닌 그 심장의 언약으로 움직이는 철의 대오, 포화에 끓는 강도, 험한 진펄길도 넘고 헤쳐나갈 불패의 대오인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일

‖ 수필 ‖ 전선에서 만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전쟁이 개시되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방송연설에 접하고 가슴을 들먹이던 60여년전 6월의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가 아마 18살 때였을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즉시 전선탄원궐기대회를 가지였다.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연단으로 달려나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고 전선탄원서에 서명하였다.

그때 한 동무가 하던 토론은 정말 모두의 마음에 꼭 들었다.

—동무들, 노예로 비굴하게 살겠는가,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겠는가.

우리에게 노예의 사슬을 씌우자고 달려드는 미친개무리들에게 죽음을 주자. 우리 세상을 지키자.

그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보니 곳곳에서 분여받은 땅의 표말을 쓰다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보였다.

나는 그들이 곧 전선에 나갈 농민들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땅,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나는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머슴군이였던 나의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제땅을 가져보는것이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소원을 끝내 이루지 못한채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옥토를 받아안던 날 어머니는 그 땅에 볼을 부비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제땅이 생겼다는것을 아시면 아마 춤을 추실거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토록 갈망하던 배움의 희망을 꽃피울수 있었고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새 생활, 새 생명을 받아안을수 있었던가 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에 접하고 전선탄원을 결심하였을 때의 나의 심정이였다.

전선으로 달려나온 수많은 전사들모두가 다 나와 같은 생각이였다.

그래서 수류탄묶음을 안고 가증스러운 적땅크밑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었고 불뿜는 적의 화점도 웃으며 맞받아나갔던것이다. 바로 그래서 《나의 고지》, 《나의 중기》라는 전쟁사에 없는 단어들이 조국해방전쟁에서 태여난것이다.

지금도 내 발밑에 엎디여 두손을 싹싹 비비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놈들의 몰골이 눈에 선하다. 남의 땅에 기여든 침략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기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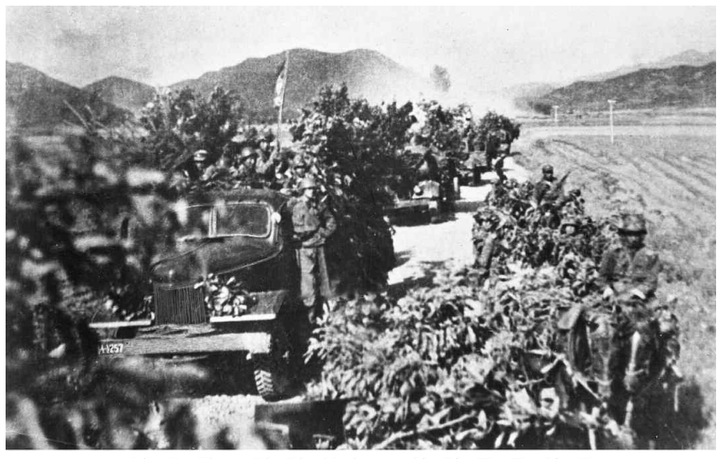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자기의 것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멸적의 총을 잡은 인민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정의와 량심을 등진 침략자들은 패배를 면치 못한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나는 로병의 이름으로 말한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그때보다 더 아름답고 유족하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은 날이 갈수록 커만 간다. 나는 새 세대들이 미제가 끝끝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용약 전선으로 달려나가 귀중한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 용감히 싸우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대성구역 룡흥3동 29인민반 전쟁로병 강명호

공화국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원쑤격멸에로!



남으로 진격하는 인민군군인들

로학자의 결심

◎ 한 전쟁로병의 수기 《화선천리》 중에서 ◎

장태화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배출된 첫 육탄영웅이다. 주체39(1950)년 6월 26일 림진강을 도하하여 문산뒤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임무를 수행하던중 그는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구분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도서에서 알게 되지 않았다. 뜻밖에도 영웅의 무훈에 대한 생동한 자료를 어느 한 전쟁로병의 수기에서 읽어보게 된 우리는 그 수기의 주인공을 찾아 취재길을 이어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반부인민들은 실지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 로선의 정당성을 인식하였으며 우리 당만이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전승 60돐을 맞으며 전국의 전쟁로병들과 그들의 가족들, 전우들과 친우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기증한 전시유물, 유품들속에서 그의 수기집을 찾아 읽어보았을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다른 전쟁로병의 일기장속에 끼워져있던 그의 수기집에는 이름석자뿐 본인의 소속과 경력도 밝혀져있지 않았던것이다.

최상원, 분명히 장태화의 지휘관이였을 그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있겠는지.

애써 실머리를 찾던 과정에 우리는 그 수기집 《화선천리》의 주인공이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 일하는 최학철의 아버지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최학철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을 때 우리의 아쉬움은 더욱 커졌다.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최상원전쟁로병은 8년전에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맏아들인 저도 아버지에 대하여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습니다. 함께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더 많은데다 평시에도 아버지는 자기에 대하여 말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산중초막에서 나서자라 마소와 같이 일하다가 새 조선과 더불어 나라의 주인이 되여 누려온 황금시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에 총을 잡은 그날로부터 예순살이 지날 때까지 군복을 입고 살아온 평범한 당원의 경력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최상원로병은 늘 이렇게 생각하였던것이다.

한생토록 군복을 입고 전사들을 키우고 말겨진 초소를 지키는데 생활의 전부를 바쳐온 전쟁로병, 그가 기록한 전쟁시기의 많은 이야기가운데서 전투실화나 전선생활단편이 아닌 류다른 체험담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비록 전투이야기는 아니여도 20대에 정치부중대장으로 탄우속을 헤쳐오던 전화의 그날부터 수십년세월을 정치일군으로 복무하여온 한 로병에 대한 표상을 가질수 있는 뜻깊은 세부였다. 그리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이 나라 사람들의 운명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시금 깨달을수 있게 하는 생동한 생활의 화폭이였다.

* *

후퇴의 행렬이 지나가고있어도 해방의 감격이 끓어번지던 충주시의 면모에는 변화가 없었다. 바람벽, 전보대 그리고 길가의 곳곳에 우리의 구호들이 그대로 붙어있었다.

시병원앞에서였다. 한 중로인이 갈길을 잃은 사람처럼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러다가 벽에 붙은 한장의 구호앞에 멈춰섰다. 그의 앞에는 이런 구호가 붙어있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이여!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모두다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자!》

우리 보기에는 모를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 로인은 고개를 기웃거리고있는것이였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인은 자기의 이름이나 직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워낙 과묵한 편이여서 말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학자풍의 기질을 가진 그에게는 가족들과 그리 크지는 않으나 연구실도 있었다고 한다.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그는 포연이 어느쪽으로 밀려가건 관계없이 오로지 이 땅에 평온만 깃들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왔다고 하였다.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8.15후에는 서울에서 교수노릇을 하다가 전쟁판에 밀려나와 별로 하는 일없이 포연이 가시기를 기다리는 로인인듯 하였다. 그러한 인물이고보면 포연이 다시 북으로 밀려가는 거리에서 복잡한 생각을 뒤적일 필요도 없을터인데 무엇때문에 고민하고있는지 알수 없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천천히 대답하였다.

《의학이란 정치학과는 인연이 없어 생체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발이 날리는 오늘에 와서야 좋은 정치체제하에서만이 좋은 의학이 탐구된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방된 이 땅에서 두달, 저는 이 두달동안에 동서국을 돌아다니면서도 배우지 못한 참된 진리를 체득할수 있었습니다.

인민정권에 저는 매혹되였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위하는 말그대로 인민의 정권이지요. 인민정권은 당장에 은을 내지 못하는 학문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마치 제것인양 도와주고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민정권은 떠나가고있습니다.

아, 붙잡고싶은 인민정권, 따라서고싶은 인민정권이였습니다.

인민정권은 저를 끌고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민정권을 따라가고싶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무엇때문에 망설이십니까?》

내가 다시 묻자 그는 한숨끝에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 구호를 보십시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이여! 했는데 손에 호미 한번 쥐여보지 못한 제가 근로인테리가 될수도 없지요. 그러니 로동자, 농민의 국가에 제가 설 자리가 과연 있겠는지…》

그제야 나는 이 로학자가 망설이는 까닭을 알았다.

《선생님, 동서방을 다 다니면서 산전수전을 겪으신 선생님앞에서 외람된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아직까지 우리 정권을 잘 모르십니다.》

나의 말에 그는 눈이 둥그래졌다.

《저의 말을 선생님은 어느정도 리해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민의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해방후 20개조정강을 발표하시였는데 그 한조항에 과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사업을 장려할뿐아니라 그 방도까지 규정되여있습니다.

근로인테리라 하여 삽이나 곡괭이를 쥐고 일을 하는 인테리를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을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위하여 바치는 그런 학자가 바로 근로인테리입니다.

인민정권은 선생님같은 과학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기쁘게 맞이할겁니다.》

이렇게 되여 로학자는 우리와 함께 북행길에 들어섰다.

걷지 않던 늙은이가 날마다 산길을 걷자니 조련치 않았다. 식사조건도 나빴다. 그런데도 그는 책과 시약이 가득찬 무거운 배낭을 살붙이처럼 등에 지고 그냥 우리만 따라걸었다. 우리는 그 로학자를 할수 있는껏 위해주고 보호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식사를 하는 우리를 찾아왔던 학자는 이제부터 절대로 흰쌀밥을 먹지 않겠다고 선포하였다. 아무리 권하였지만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삶은 통강냉이나 군고구마 몇알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그에게만은 끼때마다 더운 흰쌀밥을 지어 대접하군 하였던것이다.

《세상에 이런 젊은이들은 처음 보았소!》

그가 우리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깊이 알게 된것은 그로부터 며칠후 불의의 폭격을 받은 행군길에서였다.

적기가 급강하하는 순간이였다. 등에 졌던 배낭을 벗어던지며 로학자가 갑자기 산락으로 줄행랑을 놓기 시작하였다.

《선생님 위험합니다. 엎드리십시오!》

목이 터지게 웨쳤지만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그는 냅다 달리기만 하였다.

적기 한대가 방향을 바꾸어 그를 따랐다. 불기둥이 솟구치는 속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간 병사들은 학자를 와락 몸으로 덮었다. 적기의 폭탄이 눈앞에서 터지고 기총탄알이 귀전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학자는 무사하였다.

그런데 배낭에 불이 달렸다. 학자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던 배낭이였다.

《아, 배낭!》 하며 두 동무가 재빨리 폭격속을 뚫고 달려나갔다.

《군대동무들!》

이번에는 학자가 그들을 목터지게 불렀다.

그들이 불이 달린 배낭을 그러안고 돌아섰을 때 가까이에서 폭탄이 또 터졌다. 온통 흙속에 묻혔던 그들은 한참후에야 일어났다. 배낭은 무사하였다.

로학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사실 그때 한 병사는 파편에 발뒤축을 다쳤다. 그러나 절룩거리면 학자가 미안해할것 같아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자연스럽게 걷기 위해 애를 썼다.

학자가 그 병사의 상처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그때로부터 5~6년후였다. 그때 부상당했던 병사가 그 상처로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우연히도 로학자는 그 병원에서 일하고있었다. 전상자의 병력서를 읽다가 너무도 놀랍고 감격하여 병사를 찾아왔다. 로학자는 병사의 주치의사가 되여 성의껏 치료해주었다는것이였다.

병원에서는 그를 임교수라고 불렀다고 한다.

* *

우리는 전쟁로병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잊지 못해한 그 임교수를 찾고싶었다. 그러나 떠나간 로병의 그후 이야기를 우리는 더 들을수도 알수도 없었다. 더우기 전쟁시기에 벌써 백발이였던 그 임교수를 성 하나만 가지고 찾는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임교수가 조선예술영화 《한 의학자의 길》의 주인공과 같이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아 떠났던 그 걸음으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최상원을 비롯한 인민군병사들앞에, 품어안아준 조국앞에 떳떳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겼을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본사기자 조향선

영원한 승리의 진군로를 밝혀주는 삼지연대기념비

지난 4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은 삼지연대기념비교양마당에서 결의대회를 가지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려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충정의 맹세가 메아리친 삼지연대기념비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꿋꿋이 이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표대로, 선군혁명승리의 위대한 기치로 더 높이 솟아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면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혁명의 명맥이며 우리의 오늘과 래일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삼지연대기념비는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하여 주체68(1979)년 5월에 제막되였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의 력사에서 차지하는 지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영원히 담보하는 불멸의 사상예술적가치로 하여 백두산대국의 국보, **김일성**조선의 만년재보로 빛을 뿌리고있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계승에 관한 사상, 대기념비건립에 관한 독창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주체적기념비예술의 최고걸작이다.

대기념비건축형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기념비의 위치설정이다. 기념비의 고유한 속성인 기념성, 웅장성, 숭엄성도, 그 인식교양적감화력과 사회정치적의의도 기념비의 위치를 어디에 정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삼지연대기념비는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지이며 조선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삼지연못가는 백두산의 장군봉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0㎞ 떨어져있다. 눈부시게 파란 삼지연의 물면너머로 백두의 천연수림이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지고 그 수평선우에 백두산의 장엄한 메부리가 솟아있다. 항일혁명의 위대한 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삼지연대기념비의 전경은 아무리 뛰여난 미술가도 그려내지 못할 장엄하면서도 숭엄하고 아름다운 한폭의 백두산명화를 방불케 한다.

삼지연대기념비는 가장 성스러운 혁명의 성지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서의 불멸의 사상적가치를 가지고있다.

삼지연대기념비는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상징하고 대표할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의 전구에 세워져있다. 삼지연지구는 무산지구전투승리의 전과정을 하나의 련관속에서 폭넓게 보여줄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였으며 피어린 자욱자욱을 헤치며 또다시 조국진군길에 오른 항일혁명대오의 최종목적지와 잇닿은 성스러운 혁명의 전구였다.

삼지연지구를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빛내여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10대에 백두산에로의 답사행군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시여 백두의 혁명전통을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지연지구를 혁명의 넋을 심어주는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전당으로 꾸릴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삼지연혁명전적지건설을 직접 발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갑무경비도로와 직접 잇닿은 곳에 삼지연대기념비의 교양마당을 형성하여 답사자들이 이곳에 이르면 인차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부터 찾아뵈올수 있도록 삼지연대기념비의 위치를 바로 정해주시였다.

한줌의 흙과 돌, 한모금의 물, 한그루의 봇나무, 한떨기 진달래꽃에도 항일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짙게 슴배여있는 가장 성스러운 혁명의 성지, 그렇듯 신비로운 명당자리에 서있는 기념비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항일혁명승리의 력사를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가려는 계승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넋을 안고 살려는 이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하나로 합쳐 항일혁명선렬들의 넋이 백두산전구에 영원히 살아 고동치는 삼지연대기념비를 일떠세워주시였다. 삼지연대기념비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민족의 국보,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것이다.

기념비의 성격과 인식교양적의의, 그 감화력을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상주제적내용이다.

삼지연대기념비가 오늘도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천만군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는것은 사상주제적내용에 있어서 항일무장투쟁의 목적과 성격, 항일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과 조국해방을 안아온 불패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방대하고 포괄적인 사상주제를 안고있기때문이다.

삼지연대기념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의 나날에 품들여 준비시켜오신 전민항쟁을 위한 조직군중의 혁혁한 대오를 형상한 부주제조각군상들이 있다. 이러한 군상들에는 혁명무력과 전민족의 총동원으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의 날을 앞당겨오려는 전민항쟁에 관한 위대한 사상이 심오하게 체현되여있다. 삼지연대기념비가 다 말해주고있듯이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전통, 전민항쟁의 시원은 항일무장투쟁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의 나날에 높이 추켜드신 전민항쟁의 기치는 오늘 반미대결전의 쾌승을 불러오는 선군혁명승리의 위대한 기치로 되고있다. 삼지연대기념비에는 또한 수령의 명령관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는 백두의 공격정신,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불타는 조국애, 혁명승리의 래일을 확신하는 혁명적락관주의를 비롯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끈 정신력의 총체가 집약적으로 체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향하여 집중되도록 자연스럽게 배치된 조국편, 홈모편, 숙영편, 진군편, 조국의 물편과 같은 부주제조각군상들은 중심주제를 살리면서도 대기념비의 사상주제적내용을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삼지연대기념비에는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땅의 후손들이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어떤 사상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길을 곧바로 이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주체의 혁명관, 조국관, 인생관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조형예술적으로 뚜렷하게 반영되여있다.

삼지연대기념비의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서 《진격의 나팔수》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수령이 준 전투명령을 전대오에 신속정확히 전달하고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항일유격대나팔수의 형상은 우리 당의 위대한 사상전의 력사를 상징적으로 집약하고있으며 오늘 우리 혁명의 나팔수,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사상적기수들의 역할을 훌륭히 대변하고있다.

백두산민족의 후손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항일혁명승리의 위대한 력사를 심장깊이 새겨주고 조국진군의 승리적로정과 더불어 선군혁명승리의 영원한 진군로를 밝혀주는 여기에 삼지연대기념비의 커다란 감화력과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사상주제적내용에서뿐아니라 규모에서도 혁명적대작이며 건축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도 완벽한 불멸의 기념비이다.

대기념비는 거기에 담겨지는 사상주제적내용이 위대하고 풍부할수록 그에 어울리는 규모와 깊이있는 형상을 요구하게 된다. 삼지연대기념비는 담고있는 사상주제적내용의 심오성, 위대성으로 하여 동상의 규모와 부주제조각군상들의 예술적형상에서 그 어느 다른 대기념비들에 비할바없이 크고 웅장한것이 특징적이다.

조국해방의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전설적인 빨찌산 김대장의 거룩하신 모습을 형상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우리 나라 기념비예술력사에서 처음으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실지배경으로 하여 모셔졌다.

《진격의 나팔수》는 인물형상을 화강석으로 축조한 조각상이다. 《진격의 나팔수》군상은 무게가 16~50t에 이르는 백수십개의 천연화강석으로 이루어져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소재로 인물을 축조한 《진격의 나팔수》는 반신조각상이지만 돌격나팔을 불면서 앞장으로 달려나가는 나팔수의 전신을 느낄수 있게 전진적인 성격이 강하게 형상되였다.

삼지연대기념비는 봉화탑구성형식에서 매우 독창적이다. 흔히 기념탑이라고 하면 밑이 넓고 우로 올라가면서 작아져야 탑으로 되는것으로 알고있다. 직접 사람이 쥐는 홰불처럼 밑이 좁고 우로 올라가면서 넓어진 봉화탑은 백두산의 자연바위를 형상한 기단부분과 자연스럽게 조화되였다.

조국편부주제조각군상에서는 조국땅에 첫발을 들여놓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조국의 진달래를 한가슴에 품어안고 크나큰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울고웃는 군상을 비롯하여 기쁨과 눈물이 한데 뒤엉킨 구체적인 내면심리세계를 진실하고 감명깊은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숙영편부주제조각군상에서는 숙영의 밤 우등불가에서 떠나온 고향과 부모처자를 그리는 대원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항일유격대원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선률을 심장으로 느낄수 있도록 감명깊은 조형적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우리 나라 기념비예술의 종합체로 되고있으며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과 기념비예술의 정수가 완벽하게 체현된 기념비형성의 교본으로 되고있다.

삼지연대기념비를 다 돌아보고 나면 혁명가의 근본이 무엇이며 조선혁명의 명맥인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는것이 왜 중요한가를 생동한 력사적화폭으로 가르쳐주는 빨찌산혁명대학의 교정을 나서는것만 같다.

유명한 전투를 기념하거나 위인들이 남긴 발자취를 후세에 길이 전하는 기념비들은 동서고금에 수없이 많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자기의 위대한 력사를 후세에 길이 남기기 위하여 기념비창조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당대 인민의 고결한 넋과 창조적지혜, 헌신의 땀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기념비들은 나라와 민족의 가장 큰 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기념비들은 대체로 일정한 력사적시기나 하나의 중대한 사건을 주제로 하고있는것이 상례로 되고있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수난많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통채로 뒤바꾸어놓은 수십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력사를 하나의 기념비에 아로새겨 가장 고귀한 혁명의 유산으로 길이 전해가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기념비이다. 삼지연대기념비야말로 위대한 력사를 전하며 서있는 군상이 아니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진군상인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력사의 기념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대들이 력사 그 자체를 잊고 산다면 그러한 기념비는 세월의 이끼속에 서서히 묻혀버리게 될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기 위해 혁명의 새 세대들은 오늘도 삼지연대기념비를 찾고 또 찾고있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위대한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오늘 삼지연대기념비교양마당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곧바로 이어가려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의 발자국이 끝없이 덧쌓여지는 빨찌산전구로 되고있다. 삼지연대기념비는 대를 이어 백두의 행군길을 헤쳐가는 혁명의 계승자들의 심장속에 력사의 기념비로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빨찌산의 넋으로 길이 간직되게 될것이다.

리 수 정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시작, 출발모임 진행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시작되였다.

출발모임이 23일 혜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김명숙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답사행군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답사자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한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열혈의 녀성혁명가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답사자들이 답사과정에 사업과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감으로써 백두의 혁명정신을 억세게 이어나가는 선군시대 녀성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고상한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신념의 맹세를 안고 혁명의 성지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경기 시작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경기가 시작되였다.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김일성**경기장과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경기에는 10개의 1급 남, 녀축구팀들이 참가하고있다.

경기는 두개 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매 조에서 점수가 높은 두개 팀이 올라와 대각경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긴 팀들이 결승경기를 하게 된다.

나머지팀들은 직선경기를 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3일 **김일성**경기장에서 평양팀과 월미도팀, 선봉팀과 기관차팀사이의 남자경기가 있었다.

경기들에서 선수들은 빠른 련락과 공몰기 등 자기 팀의 특성을 잘 살려 련속 득점기회를 마련하였다.

평양팀과 월미도팀은 전반전을 1:1로 비긴 가운데 후반전에 들어와 공격속도를 부쩍 높여나갔다.

득점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상대팀문전을 위협하던 평양팀이 후반전 17분경에 한꼴을 넣고 주심시간에 또 한점을 기록하여 결국 월미도팀을 3:1로 이겼다.

이날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진 선봉팀과 기관차팀사이의 남자경기는 득점없이 결속되였다.

경기는 계속된다.

볼리비아사회주의에로의 운동 부위원장이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을 만났다

꼰셉씨온 오르띠스 볼리비아사회주의에로의 운동 부위원장이 17일 볼리비아에서 진행된 77개집단 수뇌자회의에 참가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김학철 삐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부위원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볼리비아사회주의에로의 운동 위원장인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대통령과 자신의 뜨거운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단장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조선로동당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잘 알고있다고 말하였다.

볼리비아사회주의에로의 운동은 조선로동당이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 청년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에 대한 교양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을 따라배울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영국왕실 국방 및 안보연구소대표단 도착

말콤 죠지 찰머스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국왕실 국방 및 안보연구소대표단이 2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영국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이 23일 중앙계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미쳐날뛰는 백년숙적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에 대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치솟는 증오와 불타는 적개심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직맹일군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선교구역직맹위원장 박일훈, 평양역 초급직맹위원장 남춘빈, 류경건설관리국 로동자 장철훈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금으로부터 64년전인 주체39(1950)년 6월 25일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가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과 불행을 들씌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살륙과 략탈에 환장이 된 미제침략자들은 도처에서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이 땅의 모든것을 무참히 파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말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고 강조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가증스러운 미제와 매국역적 박근혜괴뢰패당을 온 나라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하였다.

만약 미제와 괴뢰패당이 끝끝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씨도 없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원수님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집단적경쟁열풍으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올해를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선군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복수노래모임 《미제에게 철추를!》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복수노래모임 《미제에게 철추를!》이 23일 신천군 원암리 밤나무골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는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조국땅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살인귀 미제에 대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끓어번지였다.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박태섭 황해남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신천군의 녀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독창 《아름다운 우리 나라》, 시 《6월 25일》에서 출연자들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구가하고 수십년전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고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철천지원쑤 미제승냥이들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조국을 사수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의지를 담은 합창 《조국보위의 노래》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또다시 제2의 6.25가 온다면 침략자 미제를 모조리 격멸소탕하는 결전장에 용약 달려나가 조선녀성의 영웅적기개를 높이 떨칠 결사의 각오를 굳게 가지게 하였다.

독창 《사랑은 내 조국에 증오는 원쑤에게》와 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 참가자들에게 계급적원쑤들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필요없으며 오직 선군총대의 위력으로 진정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었다.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정과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복수노래모임을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은 미제와의 최후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일심단결의 위력, 무자비한 총대의 위력으로 원쑤 미제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간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특하고도 민족적색채가 짙은 공연, 조선을 잘 알게 된 훌륭한 계기

우리 학생예술단 단마르크에서 공연

【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소편대학생예술단이 쾨펜하븐을 비롯한 단마르크의 여러곳에서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예술단성원들은 합창 《조국찬가》, 중창 《인민의 환희》, 기악중주 《세상에 부럼없어라》, 가야금독주 《평양날파람》, 《꽃놀이》, 무용 《목동과 처녀》, 《장고춤》 등과 단마르크노래들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어머니당과 조국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앞날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 행복동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장소마다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 학생예술단의 공연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였으며 격정에 넘쳐 관람소감을 피력하였다.

베티 난쎈극장 총지배인 헨리크 하트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여년간 이 극장에서 일하면서 이처럼 훌륭하고 관중들의 대절찬을 받은 공연을 본적이 없었다.

조선학생들의 공연은 독특하고 민족적이며 예술적기량이 매우 높다.

극장 총지배인으로서 예술단이 첫 공연을 우리 극장에서 진행하고 관람자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데 대하여 긍지로 생각한다.

우리 극장에서 훌륭한 공연무대를 펼쳐보인 조선의 학생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함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

특히 이처럼 훌륭한 예술인재들을 키워내고 단마르크에 와서 공연할수 있도록 해주신 조선의 령도자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북유럽 아시아연구소 소장 게이르 헬게슨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조선을 연구하고있지만 오늘 공연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너무도 모르고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이 나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만 알고있던 관중들의 놀라움이 매우 크리라고 본다.

예술단의 한시간도 못되는 공연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지배하고있던 조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어놓았다.

조선과의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티다극장그룹 대표 쏘렌 오브쎈은 단마르크의 이름있는 극장들에서 조선의 학생예술단이 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터놓았다.

모든 관중들이 은은하고 독특한 음색을 가진 가야금연주와 우아하고 민족적인 무용들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이 너무도 잘 부른 단마르크노래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불렀다.

나는 조선예술의 높은 수준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이번 공연이 크게 성공하리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이토록 열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지금까지 조선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해오던 단마르크의 신문, 방송들이 예술단의 단마르크순회공연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아왔으며 좌석이 모자라 관람석계단과 바닥에 앉아 관람하였다.

우리 극장에서 이처럼 초만원을 이룬 관중의 커다란 흥분과 절찬속에 진행된 공연은 아직 없었다.

링쾨빙시 예술 및 극장 기금리사회 리사 벤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마르크서부의 관광도시인 링쾨빙시로는 많은 나라 예술단들이 찾아와 공연을 하고있다.

이곳 주민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공연들을 관람하는 기회가 많기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공연이라고 해도 적당히 박수를 치는것이 일반적이였다.

그러나 조선학생들의 공연을 보며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함께 호응하였다.

관중들은 이들의 공연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미국은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전조선반도를 지배하려는 침략야망의 산물

지난 조선전쟁은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으며 민족의 자주적발전의 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발발당시 이 전쟁이 마치도 우리의 《남침》에 의해 일어난것처럼 흑백을 전도하며 유엔에까지 끌고가 거수기를 발동하여 그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꾀하였다. 조선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에 전쟁도발의 책임을 넘겨씌우면서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우고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끈질기게 책동하여왔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력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수십년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였지만 력사적사실자료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전쟁도발자, 침략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제가 전조선반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일으킨 침략전쟁이였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군사적수단에 의한 침략과 전쟁이다. 지리학적으로,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는 조선반도를 장악하면 동북아시아지역전반에 대한 지배를 손쉽게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간파한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쳐왔다.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고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자는것이 미국의 흉악한 기도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일제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침략무력을 《해방자》의 탈을 씌워 남조선에 들이밀었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한편 전쟁정책실행도구로서 괴뢰정권을 조작해내고 친미주구들을 내세워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를 저들의 침략적목적에 철저히 종속시키였다.

미제호전광들은 《점령범위를 전조선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국정계에서도 《조선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이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달려있는 싸움터》라느니, 《공산주의와의 승패를 겨루는 시험장》이라느니 하는 호전적인 주장들이 공공연히 튀여나왔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곧 전조선반도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침략정책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이후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따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침략계획을 미리 은밀한 방법으로 작성, 완성하였다.

미제는 맥아더사령부에 작전계획과 첩보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을 두고 전 일본군장성들과 고급장교들로 조직된 《력사반》과 《KATO》기관까지 끌어들여 수년간에 걸쳐 전쟁계획을 연구작성하였다. 미국은 1949년말부터 1950년초에 걸쳐 조선전쟁도발계획을 검토, 수정하고 38° 선돌파작전으로 침략전쟁을 개시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세계제패전략을 반영한 극비문건인 《NSC—68》계획도 작성하였다.

1950년 4월 2일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비준된 《NSC—68》계획에는 조선전쟁을 도발한 후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를 투입할데 대한 문제가 반영되여있었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주력으로 될 미군무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1948년 6월에 미국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평화시기 《징병법》을 조작하고 군사예산을 대폭 늘이는 한편 남조선괴뢰군을 조직, 확대하기 위한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군을 전쟁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해 《10:1의 우위보장》을 목표로 내걸고 괴뢰군의 무력증강책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는것을 전쟁준비의 중요한 고리로 내세운 미제는 군정장교단, 군사고문단 등을 통해 괴뢰군부대들의 모집과 편성, 교육, 훈련을 직접 틀어쥐고 집행하였으며 10억US$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막대한 무장장비를 남조선에 반입하는 등 북침전쟁능력강화에 열을 올리였다.

38° 선무장도발을 《내전을 위한 좋은 시험대》로, 《적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실전능력을 높이는 연습》으로, 《북벌》군사전략계획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공격출발위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은 미제는 38° 선일대에 괴뢰군의 방대한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무장도발에로 끊임없이 부추기였다. 이와 함께 조선반도주변지역에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저들의 침략무력도 증강배치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전쟁준비책동에 대하여 미국도서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에서는 《북조선에 대한 공격준비는 1950년 5월에 일체 끝났다.》라고 폭로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조선전쟁을 위한 침략무력준비를 전례없이 철저히 한데 대하여 미국도서 《아메리카현대사》에는 《전쟁개시에 있어서 이번 전쟁처럼 완전히 준비하고있은적은 우리들의 력사에서 처음이다.》라고 기록되여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하였는가를 폭로하는 사실자료들은 수없이 많다.

미제는 이처럼 전쟁도발준비를 빈틈없이 갖춘데 기초하여 1950년 6월 25일 불의의 북침공격으로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64년전에 일어난 조선전쟁이 미국이 대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각본에 따라 도발한 침략전쟁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해마다 6월이 되면 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극도의 대결전쟁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전쟁기념행사》들을 요란하게 벌려놓고있다. 더우기 《은인》이니, 《공헌》이니 하면서 미국상전을 극구 개여올리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패당은 지난해 우리 민족에게 대재난을 들씌운 6.25를 그 무슨 명절처럼 《기념》하면서 조선전쟁에 동원되였던 미제살인귀들과 외국고용병들에게 훈패를 달아주고 《감사》를 표시하는 광대극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가소롭게도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우는 조선전쟁을 이제는 《잊혀진 승리》로 다시 정립할 때가 왔다느니 뭐니 하는 수작까지 줴쳐댔다. 지어 조선전쟁의 《도발주체》를 명백히 한다고 하면서 지금껏 써오던 《남침》이라는 표현대신 《북의 남침》이라는것을 공식용어로 사용할것을 괴뢰군부와 학생들에게 내리먹이고있다.

미국과 괴뢰들의 책동이 전쟁도발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전쟁을 도발한 《범인》으로 몰아보려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우기 거기에는 《남침위협》의 간판밑에 군사적대결을 극도로 격화시킴으로써 기어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죄악의 력사를 덮어버리려고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그것은 헛된 망상이다.

력사는 결코 지워버릴수도 없고 부정할수도 없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전쟁을 도발한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심 철 영

력사는 고발한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필연적산물로서 미국과 리승만도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하고 치밀하게 작성된 계획에 따라 감행한 침략전쟁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사환군들과 그에 추종하는 어용사가들은 이것을 북으로부터의 예견할수 없었던 《기습적인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진실을 오도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력사의 진실은 그 누구도 가리울수 없는것이다.

당시의 사건과 관련한 몇가지 사실자료들만 보아도 명백히 알수 있다.

1950년 6월 24일 워싱톤에서는 당시 미중앙정보국 장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미중앙정보국 장관은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나서 흥분된 어조로 기자들에게 더 물을것이 없는가고 반문하였다.

그의 행동에 흥미를 느낀 기자들은 《무엇인가 특종감의 뉴스가 있으면 더 알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당신들이 말하는 특종기사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발표할것이 못된다. …》라고 하면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오늘밤 아니면 래일아침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 《뉴욕타임스》 1950년 6월 28일)

《인민군대는 38° 선에서 대단히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되여있었다. 그들은 방위를 위하여 배치되고있었다. 그들은 결코 공격을 위한 배치상태에는 있지 않았다. …반면에 남조선군은 자기의 모든 군수물자와 장비를 38° 선전역에 집결시켜놓고 있었으며 배치대형도 종심진지형이 아니였다. 38° 선과 서울사이에는 전역이 병참기지였다.》(1951년 4월 맥아더의 증언)

《6월 25일 일요일 아침 미국 신문기자는 〈미극동군사령부〉의 소장부부의 안내로 일본의 닛꼬를 구경하기로 했었다. 맥아더의 전용차를 련결한 닛꼬행렬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소장은 역에 나와서 자기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로부터 꼭 출근하여달라는 지시를 받았기때문에 동행할수 없다고 사과했다. 닛꼬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하려고 할 때 〈미극동군사령부〉의 한 고관이 도꾜로부터 장거리전화로 호출되였다. 그가 돌아와서 낮은 목소리로 기자에게 〈국군〉이 북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알려주었던것이다.》(일본도서 《맥아더의 수수께끼》)

당시 미국과 일본의 신문들은 이미 6월 24일에 남조선군이 38° 선을 넘어서 인민군 진지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군은 23일 밤 10시부터 24일 4시까지 기간에 옹진반도에만도 105㎜포와 81㎜포 240발을 발사했다고 전하였으며 미국의 한 대학교수도 《불의의 타격을 받은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이라고 폭로했다.

이렇듯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놓고도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하여 떠드는것이야말로 닭잡아먹고 오리발내미는 격의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력사를 부정하며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려는자들이 가닿게 될 종착점이란 파멸의 길뿐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침략계획을 최종검토하고있는 미제

◎▼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그 일요일이 또다시 온다면

나는 준엄한 6.25의 그 일요일을 직접 체험하였고 가렬처절한 전쟁의 3년세월 포연탄우속을 뚫고 싸운 전쟁로병이다.

6.25당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이던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던중 전쟁도발소식을 듣게 되였다.

청춘의 가슴속에 나래치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려드는 간악한 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참을수 없어 나는 주저없이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전후에도 근 40년간이나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수호의 일선에 서있었다. 어느덧 60여년세월이 흘러 육체는 이전같지 않지만 전화의 나날의 기상과 정신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에서 저들이 당한 쓰디쓴 패배에서 아직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제2의 6.25를 꿈꾸며 선불질을 해대고있는 꼴을 보며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오름을 금할수 없다.

우리 전쟁로병들은 총대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것을 피어린 력사를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그 할애비가 한뭉테기로 달려든대도 결코 두렵지 않다.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려고 날뛰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다.

나는 비록 나이는 많아도 60여년전의 그 6.25, 그 일요일이 또다시 닥쳐온다면 미제와 친하매국노무리를 지구상에서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한 보복성전에 남먼저 떨쳐나설것이다. 우리 자식들도, 손자들도 그렇게 할것이다.

만경대구역 금성 2동
전쟁로병 신 택 룡

침략의 아성을 들어내겠다

지금으로부터 64년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민주개혁의 기쁨과 밝고 창창한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려고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그사이 강산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였지만 침략의 무리들이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1950년의 6.25를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오늘도 남조선의 박근혜패당은 미제를 등에 업고 이 땅에 또다시 북침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고 발광하고있다.

자기의 더러운 목숨을 유지하고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 동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는것도 서슴지 않는 남조선괴뢰패당이야말로 천추에 용서 못할 추악한 역적무리이다.

우리 민족이 또다시 6.25의 참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도 남조선에서 미제를 하루빨리 몰아내고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이골이 난 매국역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령토를 단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 즉시에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안겨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채 불태워버릴것이다.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와 민족의 머리우에 핵재앙을 몰아오고있는 친하의 역적무리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소탕해버리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며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려는 우리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자비한 징벌의지를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군관 정 광 일

복수자들은 선언한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가슴가슴은 가증스러운 미제와 매국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활활 불타고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것도 모자라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뻔질나게 벌리며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괴뢰역적무리들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이런 극악한 원쑤들을 살려두면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발편잠을 잘수 없게 된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하듯이 온갖 불행과 악의 화근인 미제와 괴뢰패당을 선군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준비해나가고있는 우리 청년들의 강의한 정신력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침략과 전쟁을 강요하는 원쑤들에 대해서는 자비와 용서를 모르고 끝까지 결산하고야마는것이 선군시대 조선청년들의 기질이며 본때이다.

만일 호전광들이 기어이 이 땅에 제2의 6.25를 몰아온다면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영웅처럼 조국수호의 성전에 피끓는 청춘의 심장을 아낌없이 바쳐 싸울것이다. 하여 침략자와 매국노들이 없는 삼천리조국강토우에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패의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문 영 진

해킹문제로 불거지는 비난전

미사법성이 5명의 중국군관을 네트워크 비밀절취죄로 기소한것은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이번에는 미국의 한 인터네트안전회사가 중국 군인들이 위성 및 항공분야발전을 위해 서방나라들을 해킹하고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문제의 회사는 해커의 우편물을 비롯하여 그것을 립증하는 증거들을 쥐고있다며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이 내놓은 보고서의 신뢰성을 론하기는 어렵다. 해킹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치렬한 비난전을 벌리고있는 미국의 회사가 자체로 작성하였다는 점도 그러하지만 보다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비법적인 감시도청활동을 벌려온 미국의 행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감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지난해에 있은 스노우덴사건을 보아도 그렇다. 미국의 이전 정보요원이였던 그는 자국정보기관들이 국내와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도청 및 감시망을 수립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있다는것을 폭로하였다. 외국간첩도 아닌 내부성원이 자발적으로 단행한 비밀폭로로 미국은 더이상 세계면전에서 비렬한 정탐모략가의 더러운 몸뚱이를 감출수 없게 되였다. 특히 스노우덴사건을 계기로 중미관계에서는 대립과 마찰이 표면화되였다. 스노우덴이 비밀자료를 공개할 당시는 중미수뇌회담이 진행되던 때였다. 미국은 회담에서 자국에 대한 중국의 싸이버범죄문제를 상정시켰었다. 두 나라의 개별적인 기업들사이에 빈번한 마찰을 빚어내는 해킹문제를 정부급에서 다루어냄으로써 중국을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고 몰아대자는것이 그들의 흉심이였다.

바로 이런 시기에 스노우덴이 미국이 중국본토와 홍콩의 콤퓨터망들을 공격한 사실들을 련이어 공개하였다. 그는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중국의 손전화회사들과 인터네트에 침입하여 수백만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통보문과 자료 등을 절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립증하였다. 미국으로서는 아연실색할 사태였다. 오죽하면 전 미국부대통령 체이니가 스노우덴은 국가안보에 최악의 피해를 준 《반역자》라고 규정하면서 그가 중국의 《간첩》일수도 있다고 비린청을 돋구었겠는가.

중국을 다불러대는 주패장으로 내들었던 해킹사건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여 미국의 목을 조이였다. 이를 두고 광범한 국제여론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정보기관이 랭전종식후 당한 첫 대참패라고 평하였다. 이렇게 막을 내리는듯 하던 해킹문제가 올해에 들어와 다시금 불거지고있다.

몇몇 개인들의 해킹으로 시작된 싸이버공격이 지금에 와서는 국가들의 안전문제로, 국제사회의 우려거리로 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세계경제가 싸이버범죄로 해마다 5 750억US$의 손실을 보고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세계대전은 싸이버전쟁으로 될것이라고 예언하고있다. 사실상 해킹문제를 놓고 두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벌리고있는 첨예한 공방전은 그러한 예언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터네트는 미국을 중심으로 관리되고있다. 미국은 인터네트관리에서 차지하고있는 특수한 지위를 리용하여 싸이버공간을 하늘과 땅, 바다, 우주에 이어 5번째 령역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패권을 노리고있다. 미국이 누구보다도 싸이버공격의 《위험성》을 떠들며 그에 대처한 군사적보복을 전략으로 내세운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기술적측면에서 볼 때 싸이버공격을 가해온 외부의 망주소를 알아낼수는 있지만 누가 그러한 공격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밝혀내기 어렵다. 싸이버공격자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도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하는것을 합법화할수 없다. 또 어디까지가 전쟁행위로 간주해야 할 싸이버공격인가를 규정할수 있는 기준도 법률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무턱대고 싸이버공격이 저들에게 《위협》으로 되며 때문에 《전쟁행위》로 보고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싸이버공격혐의를 들씌워 임의의 시각에 군사적행동을 단행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추진하고있는 미국에 있어서 중국은 첫째가는 잠재적인 적수이다. 이에 대해 그들자신이 숨기지 않고있다. 2000년부터 미국방성이 발표하고있는 중국의 군사동향에 대한 보고서는 그 단적실례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예산이 두자리수이상으로 늘어나고 최첨단무기개발과 도입에 많은 자금이 돌려지고있다는것, 중국인민해방군이 싸이버전을 강화하면서 미국정부와 기업을 노린 싸이버공격에 관여했다는것 등을 렬거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에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사건을 더 보자.

몇해전 미국의 최대군수독점체인 《록키드 마틴》회사가 해킹당하는 일이 터졌다. 스텔스기능을 갖춘 다음세대 전투기 《F—35》, 최신예 《F—22 랩터》, 《F—16》전투기, 핵미싸일 등 주요무기들을 대량생산하며 《초대국》의 군사력을 떠받든다고 하는 이 회사가 싸이버공격을 당하자 미국은 중국을 걸고 들었다. 중국이 최근시기 스텔스폭격기에 이어 스텔스기능을 갖춘 다음세대 공격형무장직승기를 생산하여 전개할 정도로 스텔스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데 이것이 자국에 대한 해킹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것이 미국의 론거였다.

국제적으로 스텔스기술을 전투기에 적용하는 나라는 적지 않다. 로씨야는 플라즈마스텔스기술을 전투기에 도입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도 스텔스비행기를 개발하고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독 중국의 스텔스기술발전을 문제시하며 《록키드 마틴》회사가 해킹당한 사건과 련결시키는것은 저들의 지배주의적이며 패권주의적인 대아시아정책이 날로 강화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의해 좌절될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라고 분석가들은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위성체계를 혼란시키는 장본인이라느니, 이것이 전시상황에서 우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군의 작전능력을 순간에 마비시키는 비극을 초래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한두번만 아부재기를 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방성이 싸이버공간에서 중국에 직접 대응하며 미태평양사령부를 지키는것을 기본임무로 한 특별부대까지 창설한것은 중미사이의 대결이 이미 싸이버공간에서까지 격렬해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요즘 미국이 중국의 싸이버공격이 다른 서방나라들을 대상으로 감행되고있다고 위험성을 류포시키는 리면에도 반중국여론전의 폭을 넓혀 위협공갈의 도수를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것만큼 중국의 반발이 이만저만 드세차지 않다. 중국은 스노우덴사건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세상이 다 아는 해커제국인 미국이 자기를 피해자로 위장하는 처사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단죄하였다. 한편 중국은 싸이버공격이 세계적인 우려거리로서 그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호상존중과 신뢰의 기초우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2011년에 《정보안전국제행위준칙》초안을 유엔에 제출한 중국은 인터네트관리를 위한 다무적협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미국이 어떻게 하나 유지하려고 하는 인터네트관리의 독점적지위에 구멍을 내려 하고있다.

보이지 않는 싸이버공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중미사이의 비난전은 상반되는 전략적리해관계에 뿌리를 둔것으로 하여 갈수록 첨예화될것이다.

본사기자 배 금 희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있는 내륙국가이다. 웰남, 타이, 캄보쟈, 중국, 만마와 국경을 접하고있다. 23만 6 800㎢의 넓이를 가진 이 나라에도 식민주의자들이 강요한 수난의 력사가 력력히 수록되여있다.

라오스는 19세기 후반기부터 유럽식민주의자들의 부단한 침략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에게 강점되였던 라오스는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무장투쟁에 의해 1945년 10월 독립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라오스땅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의 마수가 끈질기게 뻗치였다. 미국은 타이와 남부웰남을 거점으로 하여 라오스에서 특수전, 국부전쟁을 벌리였으며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하지만 라오스인민은 반미구국항쟁을 줄기차게 벌려 미제를 몰아냈다.

1975년 12월 2일에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창건이 선포되였다.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라오스인민은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의 길에 신심드높이 들어서게 되였다. 라오스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이 나라 인민은 사회적진보와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매해 8%의 경제장성률을 보장하고 국민소득을 높이며 빈곤세대수를 줄이는것은 현시기 라오스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제7차 5개년사회경제발전계획의 기본목표이다. 이 계획수행을 위해 라오스에서는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각적인 경제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지난 시기 경제발전에서 라오스는 지하자원에 대한 채취와 수출에 의존하여왔다. 라오스정부는 이러한 경제적편파성을 없애고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실정에 맞게 농업과 림업, 수력발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련의 대규모기업창설을 통하여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있다. 교육을 발전시키고 민족문화전통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특히 이색적이며 불건전한 부르죠아사상문화가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라오스주석 쭘말리 싸이냐쏜은 지난해 국가보위와 사회안전보장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평가하면서 모두가 올해를 단결의 해로 빛내이고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라오스는 평화, 독립, 친선, 협조의 대외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면서 아시아나라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며 국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제9차대회에서는 라오스정부의 이러한 대외정책적립장이 다시금 뚜렷이 표명되였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 인민은 라오스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하고있다.

본사기자

가이아나에서의 교육사업

이스라엘의 탄압만행 규탄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탄압에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테로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만행을 당장 걷어치울것과 체포된 팔레스티나인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41098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